

Studio Half-bottle

시각디자인 작업 포트폴리오

email address

hello@half-bottle.studio

webpage

<https://half-bottle.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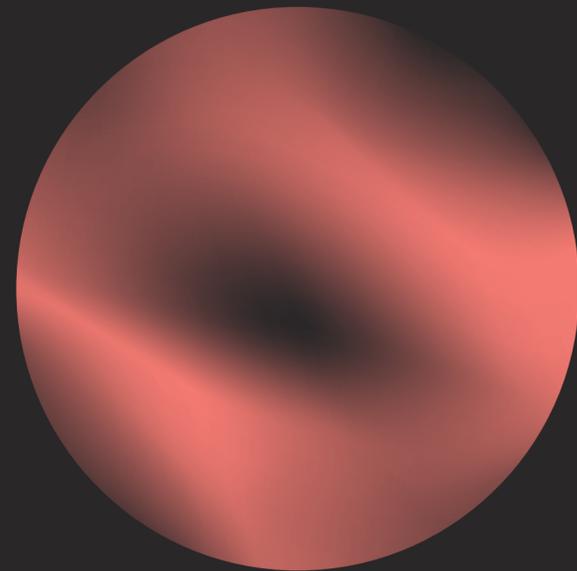
(1) 브랜딩/프로모션 관련 작업

이 장에는 브랜딩 또는 프로모션에 사용된 디자인을 모았습니다. 각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추어, 디자인 기획부터 실제 시각화까지 전체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작업은 보통 브랜드와 프로모션이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주제와 감성을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이 내용으로부터 시각적 요소를 끌어낸 뒤, 프로젝트 속 여러 디자인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p. 3
전국투표전도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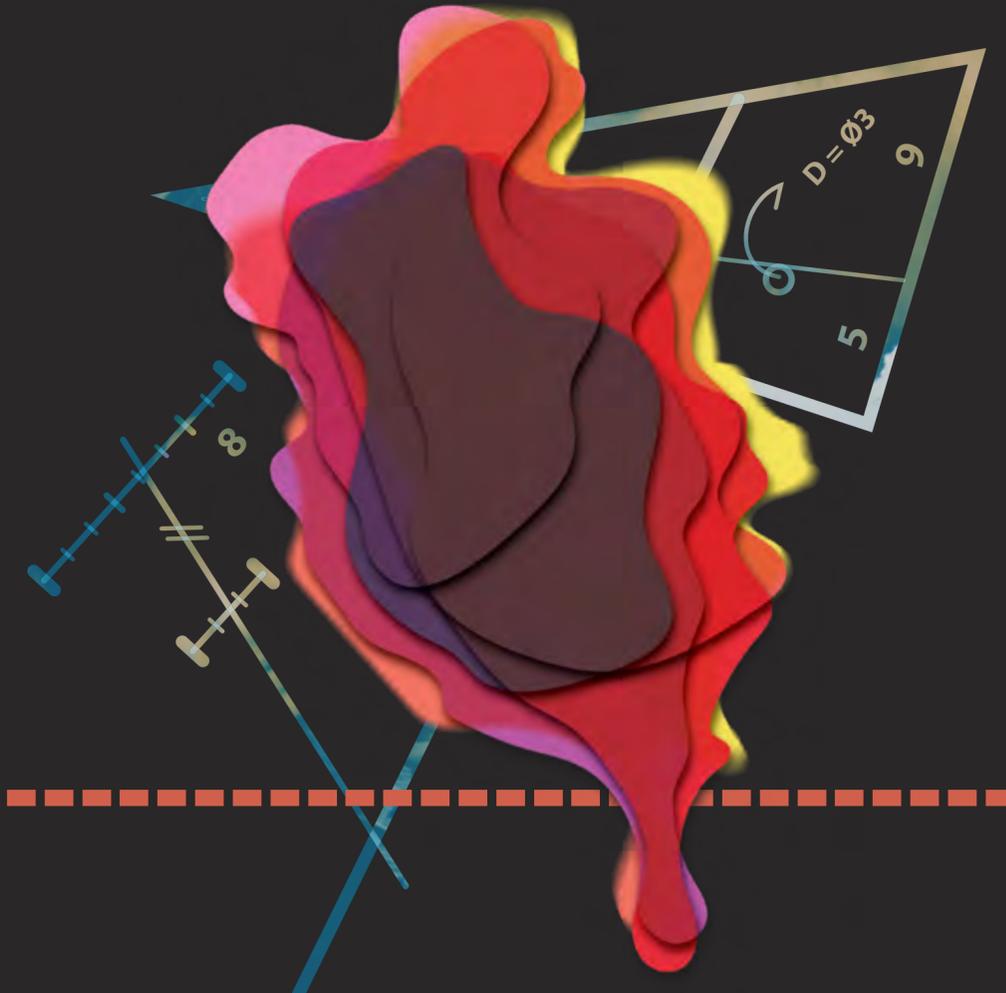
p. 10
멘탈 응급상자: Mind your mind



p. 17
GLE: 기레기인증시험



p. 24
Liberact 연극 홍보 포스터



전국투표전도 2018

“나의 선택을 돕는 지방선거 가이드”

정적 인포그래픽, 책자 편집디자인 + 굿즈 디자인

2018. 02. ~ 2018. 05.

발표 매체

Tumblbug 클라우드펀딩을 통한 독립출판.

https://www.tumblbug.com/skorea_election_map_2018

월간 <DESIGN> 2018년 6월호 Editor's Pick 수록.

(p.18, [링크](#))

격월간 <CA> 2018년 7/8월호 Project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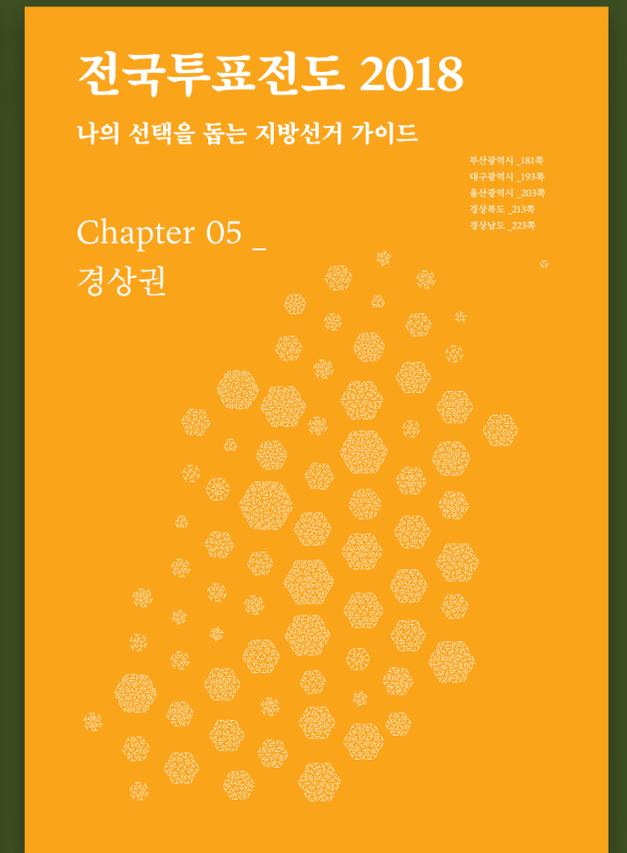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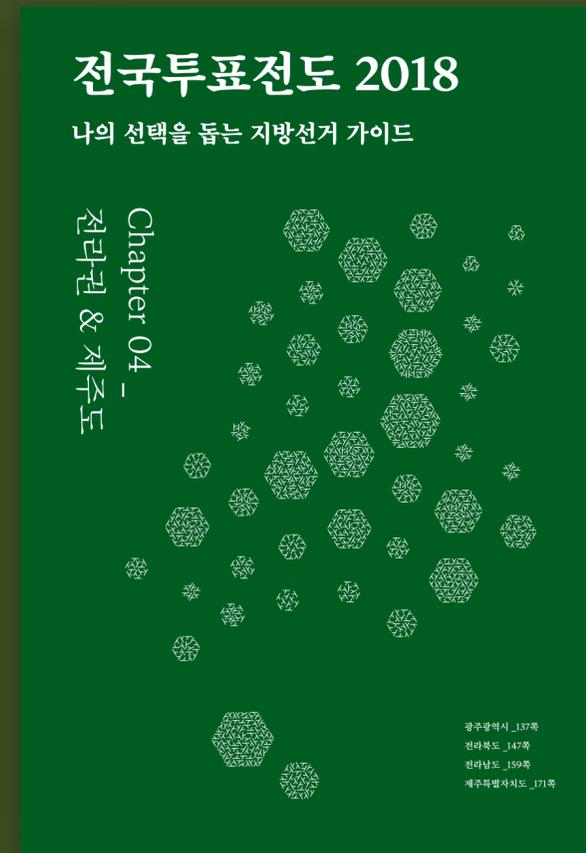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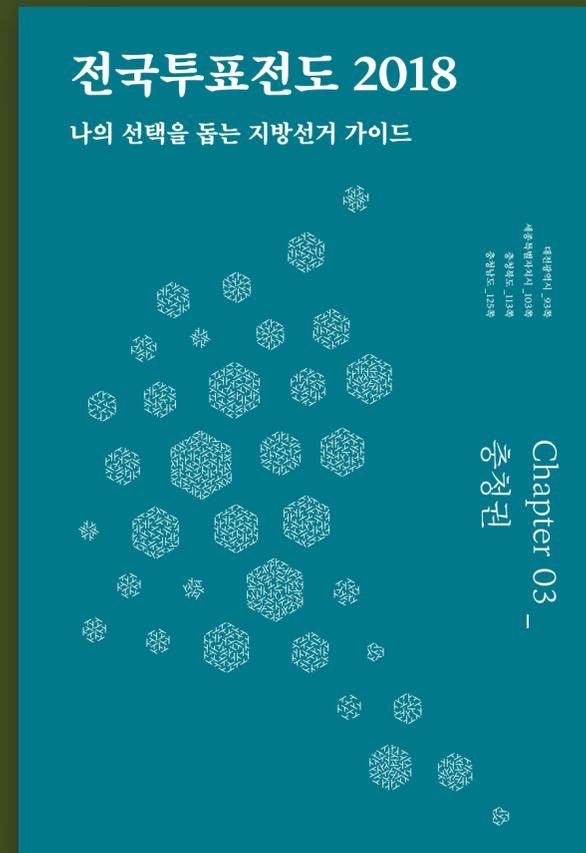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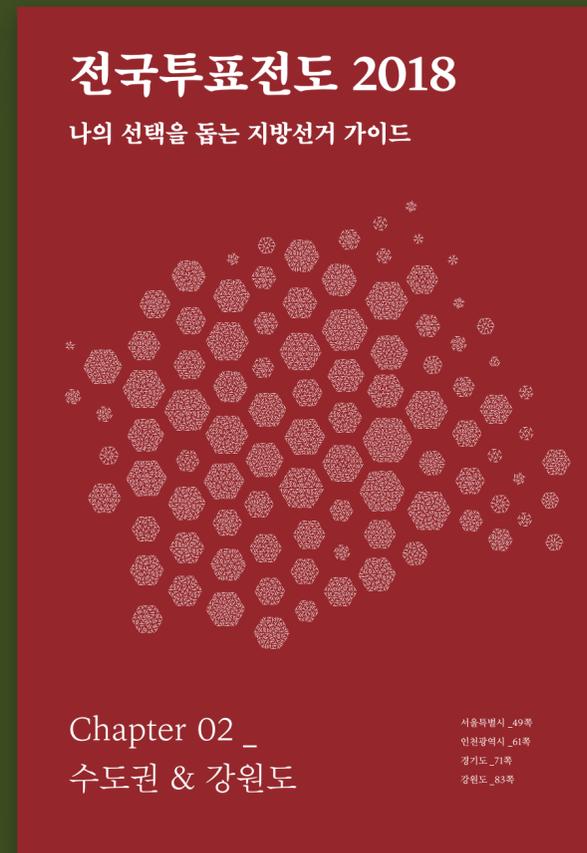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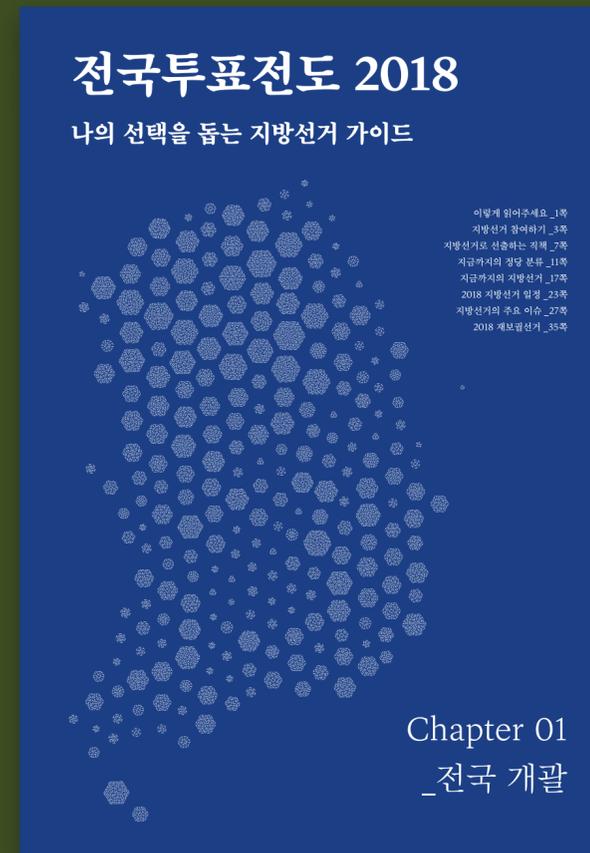
(pp.94~99, [링크](#))

제작 참여

프로젝트 그룹 “스튜디오 하프-보틀”의 이름으로 활동.

조현익 (기획, 집필, 인포그래픽, 표지 및 편집디자인, 굿즈 디자인)

송수영 (책자 레이아웃 및 편집디자인, 굿즈 디자인)



- 전국투표전도 2018 프로젝트 소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투표를 돕기 위한 단행본 책자를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독립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전국투표전도 2018: 나의 선택을 돕는 지방선거 가이드> 라는 제목이 붙은 이 책자는, 전국 각 지역별 지방선거 역사와 이슈, 선거결과를 주목할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대한 전국단위 내용, 그리고 각 권역별 내용이 각 1권을 이루고 있으며, 총 5권(236페이지)으로 한 묶음이 구성됩니다.

책자에 사용된 그래픽 요소 및 인포그래픽은 2016년부터 개인작업으로 제작한 <대한민국 전국투표전도>를 활용했으며, 이 지도를 통해 지방선거의 각 지역별 과거 결과를 한 눈에 보면서 본문을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국투표전도 2018:
나의 선택을 돕는 지방선거 가이드

152 × 225 mm (5권, 총 236쪽),
종이 위에 읍셋 인쇄 / 실재봉 중철제책
Adobe Illustrator, Adobe InDesign
2018년 5월



제주·서귀포시장 직선제 문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로, 제주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한다. 2000년대 들어, 도를 없애고 구·시·군을 병합해서 크기를 키우는 방식으로,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구·시·군)의 2단계로 분할된 지방정부를 1단계로 개편하는 행정개혁이 추진된 바 있다. 제주도가 그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2006년에 <제주특별법>이 제정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되어, 중앙정부와 국회의 권한 일부가 도지사와 도의회에게 이양되었다. 기존의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병합되고, 두 시의 자치정부와 의회는 폐지되었으며,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도지사의 지시를 받는 단순 행정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도 시장 직선제 부활 문제는 제주도의 주요 이슈로 남아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도내 균형발전 문제로 미묘한 갈등이 있고, 제주도 전체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시장 직선제 찬성의견도 크게 두 가지로 갈린다. 첫째로, 국회에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 시의 자치정부를 부활하자는 의견이 있다. 둘째로, 자치정부를 부활하지는 않되, 주민선거를 거쳐 선택된 인물을 도지사가 시장으로 임명하자는 의견이 있다. 2006년부터 이 문제는 제주도의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화두가 되었다.

제주특별법
공식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고, 공식 약칭은 <제주특별법>이다.

산남과 산북

제주 제2공항 건설의 중요 명분 중 하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한라산을 기준으로 흔히 '산남'과 '산북'으로 불리는 두 도시의 격차는 심각하다. 한국 본토와 연결되는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덕분에, 산북의 도심지역은 제주도의 모든 물류와 인구 이동,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다. 생활시설과 문화시설 차이, 고등학교 학군과 대학교 교육여건 차이로 인해 제주도 내에서는 산남보다 산북에 거주를 희망하는 인구가 매우 많다. 이는 3:1에 가까운 인구비율 차이로 드러난다.

산남-산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이슈가 제주도에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내 공공기관 채용 시 서귀포 주민 쿼터를 확대하는 이슈는 단골로 떠오르지만, 제주도 내에서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앙정부가 나서서 제주도의 혁신도시를 서귀포에 배치한다거나, 본토에서 온 이주민이 산남지역에 많이 정착하는 등 제주도 외부의 유입이 격차 해소에 더 도움을 주는 상황이다.

제주 제2공항: 관광산업은 제주를 살리는가 죽이는가?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국제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국토교통부는 2015년 서귀포시에 별도의 국제공항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2018년에 착공해서 2025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며, 현임 원희룡 도지사는 제2공항 계획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개발사업이 언제나 그렇듯, 기존 주민들의 토지수용 보상과 주거환경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안전한 이착륙 항로를 확보하려면 서귀포시 일대의 오름 10여 개를 깎아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논란을 더욱 키웠다.

제주 제2공항 이슈는 이제 환경문제를 넘어서서, "공항 용량을 키워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라는 제주도 산업 경제 전반에 대한 의문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관광객이 너무 많이 유입되면 제주도민의 생활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 물가는 오르지만 제주도 내 부동산과 관광시설을 소유한 외국인과 외국인의 수입만 증대시킨다는 의견 등이 고개를 들고 시작한 것이다.

- 책자 레이아웃 디자인

책자 편집디자인은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1)모든 연령대의 독자들을 고려해서 만들 것. (2)인포그래픽이 중심이 되어 눈에 잘 들어오게 할 것.

위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송수영과 조현익이 함께 보수적인 디자인 요소(신국관 판형, 산돌체비를 이용한 본문 타이포그래피)와 짧은 호흡을 유도하는 디자인 요소(여러 단으로 나뉜 본문, 소재목 강조, 5권 분할 중철 실제본 등)를 섞어서 레이아웃을 만들었고, 여기에 본문과 이미지를 배치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전국투표전도 2018: 나의 선택을 돕는 지방선거 가이드 (대구광역시 챗터 표지)

152 × 225 mm (5권, 총 236쪽), 종이 위에 읍셋 인쇄
조현익 집필, 인포그래픽 및 편집디자인, 송수영 편집디자인
Adobe Illustrator, Adobe InDesign
2018년 5월

전국투표전도 2018: 나의 선택을 돕는 지방선거 가이드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이슈)

152 × 225 mm (5권, 총 236쪽), 종이 위에 읍셋 인쇄
조현익 집필, 인포그래픽 및 편집디자인, 송수영 편집디자인
Adobe Illustrator, Adobe InDesign
2018년 5월

쇠퇴하는 구도심과 발전하는
계획도시가 마주하고 있으면,
도시철도 같은 도시시설의
건설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를
조율하는 지방정부의 정치력이
늘 중요하지만, 대전은 몇 년째
조율에 실패하고 있다.

▶ 권선택 새정치민주연합	322,762표	50.07%
▶ 박성효 새누리당	301,389표	46.76%
▶ 한창민 정의당	11,346표	1.76%
▶ 김창근 통합진보당	9,009표	1.39%
▶ 총 유효표수	644,506표	
▶ 무효표수	8,165표	
▶ 기권수	555,301표	

전국투표전도 2018: 나의 선택을 돕는 지방선거 가이드 (대전광역시 인트로)

152 × 225 mm (5권, 총 236쪽), 종이 위에 엷은 인쇄
조현익 집필, 인포그래픽 및 편집디자인, 송수영 편집디자인
Adobe Illustrator, Adobe InDesign
2018년 5월

대전광역시는 자유민주연합(자민련)과 자유선진당으로 이어진 충청권 제3정당의 영향력이 20년 이상 지속된 도시이다. 보수주류 정당과 민주당계 정당이 대전을 공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대전에서 충청권 제3정당은 충북과 충남에서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곤 했다. 이로 인해 대전의 지방선거 구도는 매년 역동적으로 변화했다.

1995, 1998년 지방선거에서 자민련은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전시장과 구청장, 대전시의회의 원을 손쉽게 석권한다. 당시 자민련은 단순한 충청권 지역주의 정당이 아니라,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박정화-전두환 군사정권의 주류세력이 주축을 이루는 정당이었다. 전라권과 경상권에 비해 지역주의가 약했던 충청권이지만, 자민련은 '정통 보수'를 내세우며 보수주류 정당의 표까지 흡수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런 경향은 1998년 대전시장 선거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보수주류 정당(한나라당)은 후보조차 내지 못했고, DJP 연합을 맺은 민주당계 정당(새정치국민회의) 역시 후보를 내지 않았다. 결국 선거는 자민련 소속의 현직 대전시장(홍선기), 국민신당 소속 후보(송천기), 그리고 민주당계 정당을 탈당한 후 독자출마한 무소속 후보(조명환)의 대결로 진행되었고, 홍선기 후보가 73.7%나 득표하며 싱겁게 승부가 결정된다.

자민련의 대전 독주체제는 2000년대 들어 경쟁체제로 바뀐다. 한나라당은 보수주류 전국정당으로 확고히 자리잡았고, 민주당계 정당도 독자적으로 충청권 공략에 나서면서 대전은 치열한 3파전의 현상이 된다. 2002년의 구청장 선거에서는 자민련이 전승을 거뒀으나, 대전시장 선거에서 엄홍철(한나라당)이 3선에 도전하던 홍선기(자민련)를 꺾고 당선된다. 게다가 이때 대전시의회의석이 한나라당 9 : 새천년민주당 1 : 자민련 9석으로 갈리면서, 자민련이 단독 과반의석을 얻는데 실패한다. 이때부터 자민련의 몰락은 전국에 걸쳐 가속화되어, 200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국회 전체 의석마저 4석으로 줄어들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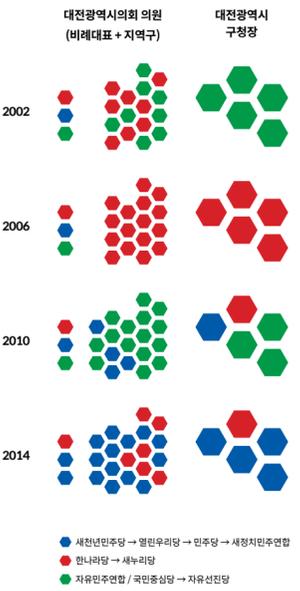
2006년 지방선거의 대전은 보수적인 표심과 (행정수도 건설로 대표되는) 충청권 개발을 원하는 표심이 대결하는, 보수주류 정당(한나라당)과 민주당계 정당(열린우리당)의 전장이었다. 노무현 행정부에 거부감을 가진 여론이 강한 탓에 열린우리당이 전국적으로 고전하는 상황에서도, 대전에서는 현임 시장 엄홍철(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높았다. 하지만 선거가 다가오며 박성효(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던 중, 박근혜 피습 사건이 벌어진다.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가 대전 유세 직전, 서울에서 괴한에게 커터칼로 얼굴을 피습당한다. 붕합 수술 직후 깨어난 박근혜가 당직자에게 첫 마디로 "대전은요?"라고 묻은 것이 알려지면서, 대전의 민심이 돌아섰다. 박성효가 2%p의 득표율 차이로 당선되었고, 구청장과 대전시의회의 지역구 의석도 모두 한나라당이 가져간다.

당시 자민련의 상황을 대구광역시 항목에서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1997년 대통령 선거 직전, 보수주류 정당(신한국당) 경선에서 패배한 이인제가 대선 출마를 위해 탈당 후 창당한 정당. 이인제는 한때 이회창(신한국당)을 지지율에서 앞섰으나, 최종득표율 19.2% (3위)에 그친다. 국민신당은 1998년 지방선거에서 충남 논산시장 선거만 승리했고, 이후 구성원 대부분이 민주당계 및 충청권 제3정당을 거쳐 2012년에 보수주류 정당(새누리당)으로 다시 합류한다.

2006년 당시 중앙정계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심대평 전 충남지사가 새롭게 창당한 충청권 제3정당인 국민중심당이 대전의 구청장 선거에서 20%대 득표율을 올리며 선전했다. 그리고 국민중심당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거지며 보수주류 정당과 민주당계 정당의 충청권 인사들, 그리고 이회창(당시 무소속)과 결합한 자유선진당으로 재편된다. 대전의 표심은 새로 부활한 충청권 제3정당으로 옮겼고, 자유선진당은 2010년 대전시장과 3석의 구청장, 대전시의회의 3/4(22석 중 16석)을 차지한다. 이 당시 대전시의회의 지역구 선거에서는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진보연대를 통해 만들어진 민주당-민주노동당 단일후보가 표를 비슷비슷하게 가져가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한다.

2012년 자유선진당이 다시 보수주류 정당(새누리당)과 합당한 이후, 자유선진당 소속 주요 정치인들이 보수주류 정당과 민주당계 정당으로 쪼개지면서 대전은 다시 두 정당이 대결하는 구도로 재편된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계 정당(새정치민주연합)이 대전시장과 구청장 4석, 대전시의회의 3/4(22석 중 16석)을 차지하며 2010년의 자유선진당만큼의 성적을 거두었다. 특이한 점은, 이때 당선된 권선택 대전시장과 2명의 구청장(송구, 동구)이 과거 자유선진당 소속이었다는 점이다. 충청권 제3정당이 사라졌음에도 그 구성원은 대전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대전광역시의 주요 이슈

& 눈여겨볼 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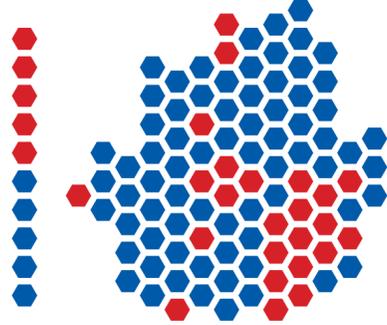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의회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중앙정치에는 5-7개 정당이 원내에서 활동하는 다당체제가 자리 잡았다. 하지만 2014년에 선출된 지방의회는 민주당계 정당과 보수주류 정당의 양당체제 시절의 구도가 여전히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 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1명의 서울시장이 전국적인 주목도와 영향력을 가지는 만큼, (2018년부터) 110명의 의원으로 이루어진 서울시의회도 서울시 행정부를 견제하며 전국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가 여소야대 구도가 된다면? 즉, 시장의 소속 정당이 시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또는, 서울시의회 안의 유력 정당이 2개에서 3-4개로 늘어난다면? 서울시의 여야 경쟁과 야당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진다면? 각각의 상황에 따라 서울의 행정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에서 여소야대가 펼쳐진 유일한 시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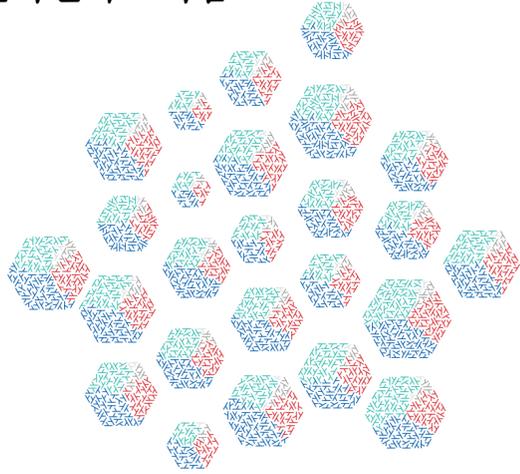


2010~2011년이다. 한나라당 출신의 오세훈 서울시장, 민주당 소속 의원이 의석의 3/4을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장 광장 사용 허가 문제, 디자인서울과 한강르네상스 사업 지속 여부, 초·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여부 등을 두고 모든 사안마다 첨예하게 대립했다. 결국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의 반대를 돌파하기 위해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발의했고, 이는 그가 정치적으로 몰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2014 지방선거, 서울시의회 당선결과

비례대표	지역구	합계
새누리당	5	24
새정치민주연합	5	72
합계	10	96

서울특별시 교육감



2014 지방선거,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 (신보계열)	1,894,872표	39.08%
문용린 (보수계열)	1,486,160표	30.65%
고승덕 (-)	1,176,060표	24.25%
이상민 (-)	290,982표	6.00%
총 유효표수	4,848,074표	
무효표수	100,540표	
기권수	3492,980표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자치에 있어서만큼은 서울시장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직선 서울시교육감은 전국적으로 임팩트 있는 정책을 실현한 이웃 경기도교육감에 밀려 어쩐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감 역시 많은 족적을 남겼다. 공정택(2008-09), 박노현(2010-12), 문용린(2012-14), 조희연(2014-)으로 이어지며 진보와 보수성향 교육감이 번갈아 집권하는 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개념을 도입하고 영훈국제중학교의 입시 비리를 적극적으로 파헤치는 행보를 보였다. 자유학기제가 현재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도입되었고, 서울에 집중된 소위 "명문" 중고등학교를 본격적으로 견제했다는 의미를 되새겨보면, 서울시교육감의 전국적 영향력은 그만큼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 교육정책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행보를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전국투표전도 2018: 나의 선택을 돕는 지방선거 가이드 (서울특별시의 눈여겨볼 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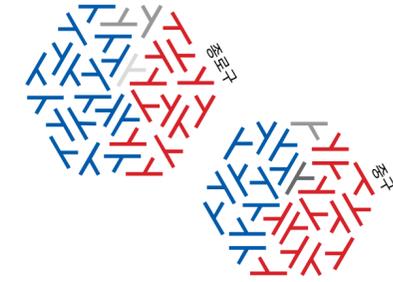
152 × 225 mm (5권, 총 236쪽), 종이 위에 읍셋 인쇄
 조현익 집필, 인포그래픽 및 편집디자인, 송수영 편집디자인
 Adobe Illustrator, Adobe InDesign
 2018년 5월

종로구, 중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집회시위 장소

당신이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는 집회에 자주 참여한다면, 종로구청장과 중구청장, 종로구의회의 중구의회의 선거를 유심히 지켜보자. 한국에서 '대규모 집회 행사' 하면 떠오르는 장소인 서울역 광장, 서울시장 광장, 덕수궁 대한문 앞, 광화문 광장, 종로, 대학로, 정부서울청사, 청와대 등이 모여 있는 종로구와 중구는 가히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사회적 요구와 의사 표현이 분출되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곳 시설물의 관리를 맡는 종로구청과 중구청이 개별 집회시위에 어떤 태도를 보이나에 따라, 집회시위를 통한 전국적인 여론 형성 과정이 꽤 큰 영향을 받는다. 두 구청은 집회 현장에 안내요원을 투입할 수도, 철기단원을 투입할 수도 있다. 2017년 8월 현재 종로구청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연인한 김영종(더불어민주당)이다. 한편 2010년에 중구청장에 당선된 박형상(당시 민주당)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었고, 2011년 재선거로 당선된 최창식(자유한국당)이 2014년에도 당선되어 현임 중구청장으로 있다. 이들의 재임 기간동안, 중구청장은 2013년 4월 덕수궁 대한문 앞에 자리했던 쌍용자동차 해고자 분향소와 농성장을, 종로구청장은 2017년 8월 정부서울청사 앞에 자리했던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하고, 천막 설치를 막는 화단을 같은 자리에 설치한 바 있다.

2014 지방선거, 서울 종로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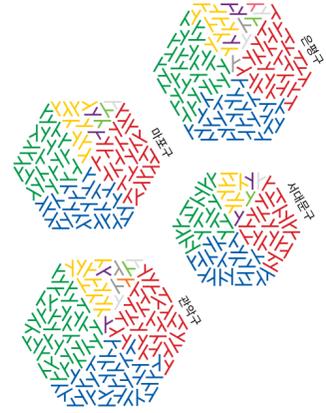
김영종 새정치민주연합	44,159표	55.51%
이숙연 새누리당	29,333표	36.87%
남상배 무소속	4,679표	5.88%
백영규 무소속	809표	1.01%
유희성 무소속	570표	0.71%
총 유효표수	79,550표	
무효표수	1,557표	
기권수	55,818표	

2014 지방선거, 서울 중구청장

최창식 새누리당	31,908표	49.70%
김남성 새정치민주연합	27,555표	42.91%
김연선 무소속	2,689표	4.18%
김상국 무소속	2,049표	3.19%
총 유효표수	64,201표	
무효표수	1,182표	
기권수	47,852표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관악구

진보정당의 교두보



서울이 전국 여론 형성의 중심인 만큼, 많은 진보정당 활동가는 서울에 지역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언제나 공을 들인다. 모든 진보정당의 정당 득표율을 합치면, 서울에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10% 내외의 고른 합계 지지율이 나온다. 이 정도의 득표력이면 자치구의회 지역구에서 2-3위권 당선자를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거치며 전반적인 정치 지형이 진보적으로 변화한 만큼,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진보정당이 시의회 또는 구의회에 얼마나 진출할 수 있을지도 주목할 사항이다. 특히 주목할 자치구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관악구이다. 진보정당 활동가가 지역 활동을 통해 활발하게 구정을 견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치구이다. 2016년 총선에서 진보정당(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복지국가당) 5곳은 이상의 4개 구에서 도합 12-14%의 비교적 높은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2016 총선,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은평구	서대문구
정의당	9.90%
노동당	0.69%
녹색당	1.21%
민중연합당	0.34%
복지국가당	0.08%
합계	12.22%

2016 총선,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마포구	관악구
정의당	11.38%
노동당	0.60%
녹색당	2.02%
민중연합당	0.29%
복지국가당	0.17%
합계	14.46%

- 선거결과 시각화 인포그래픽 디자인

선거결과를 나타낸 인포그래픽의 기본요소는 6각형과 점 북(卜)자(이하 '점')입니다. 이는 실측 지도나 단순한 막대 그래프로 선거결과를 표기하는 것을 넘어서, 각 지역별 인구 및 투표수, 당선의석수의 실제 의미에 맞게 가중치를 부여한 인포그래픽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선거결과를 다양한 기준으로 놓고 살펴보면, 동시에 시각적 톤을 일관성있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 인포그래픽을 처음 제안했던 2015년의 작업과 함께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 시각화 제안 (1): 인구비례 6각형

각 지역구는 1개의 6각형으로 나타내고, 이 6각형은 지역구별 인구수에 비례하도록 합니다. 실축지도와 달리 인구에 따른 비율로 표시하여, 눈에 보이는 면적이 실제 선거결과의 영향력과 비슷해지도록 합니다.

- 시각화 제안 (2): 심볼을 사용한 득표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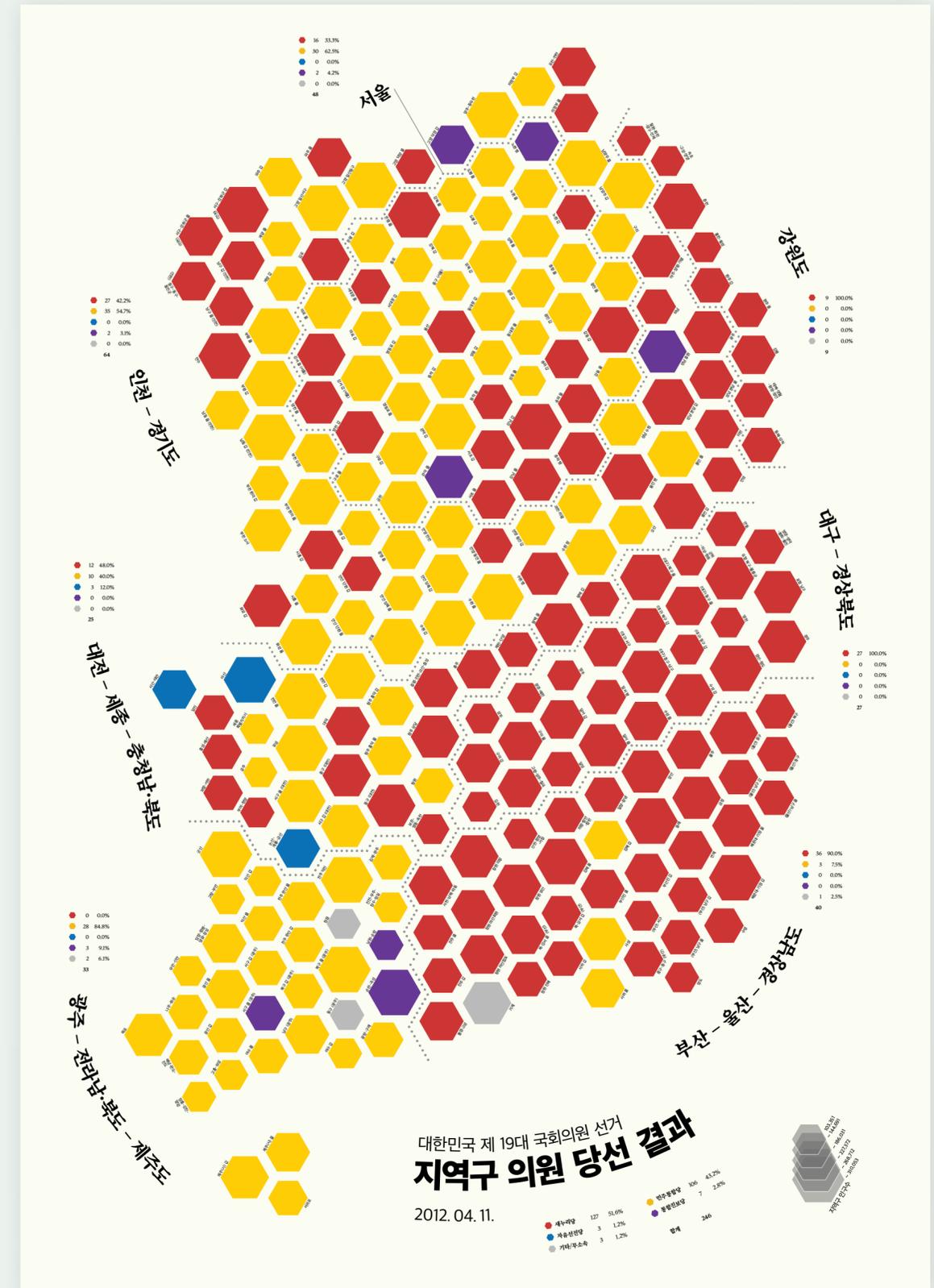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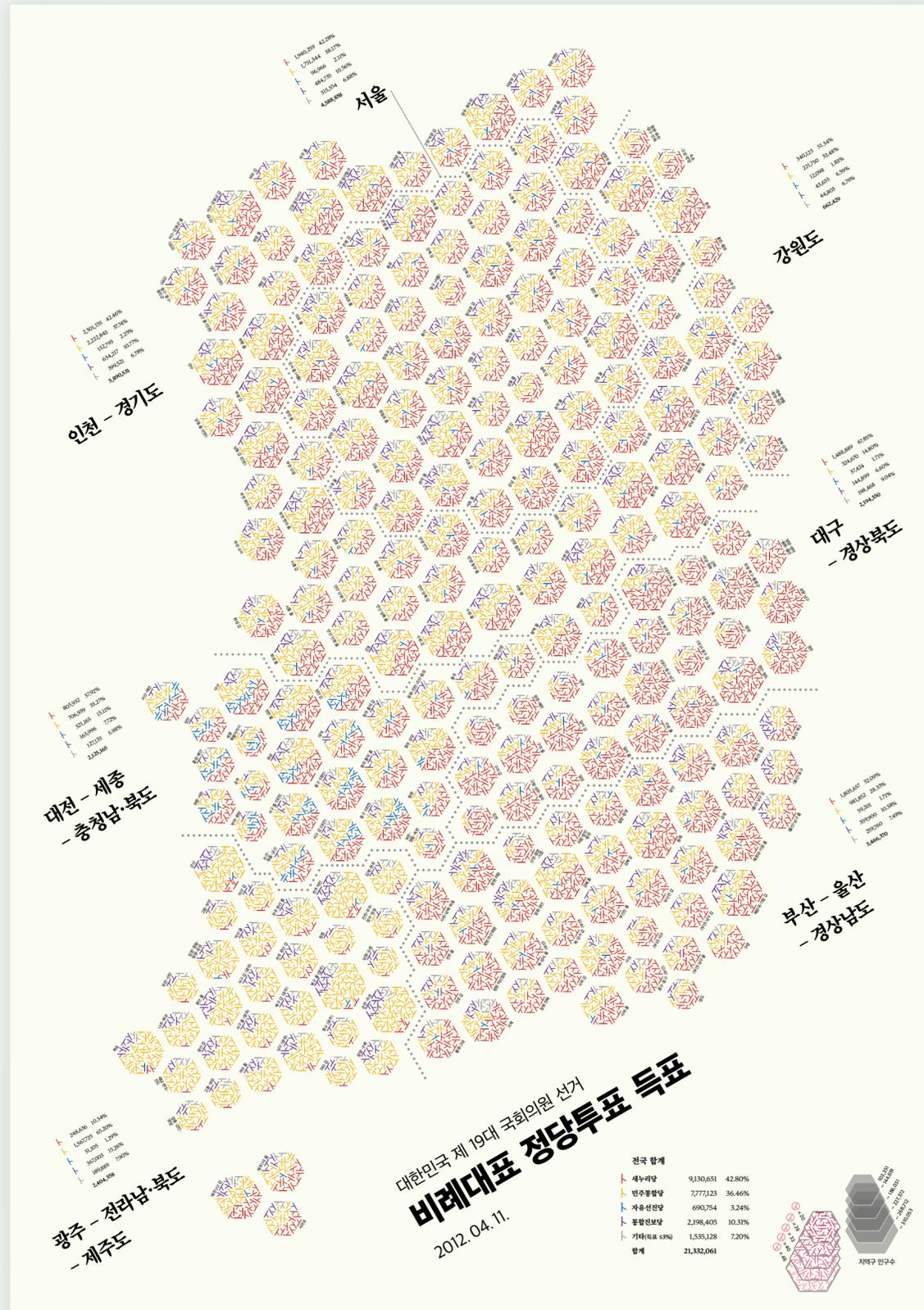
지역구별 득표수는 '시민 1명'으로서의 유권자를 드러내기 위해, 일정한 숫자의 유권자를 1개의 덩어리로 나타내서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는 단순한 %의 비율로 표시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하나의 개체로서 존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덩어리는 한국 공직선거의 기표심볼을 사용하여, 정치적 상징성을 담으면서도 6각형과 조형적으로도 어울리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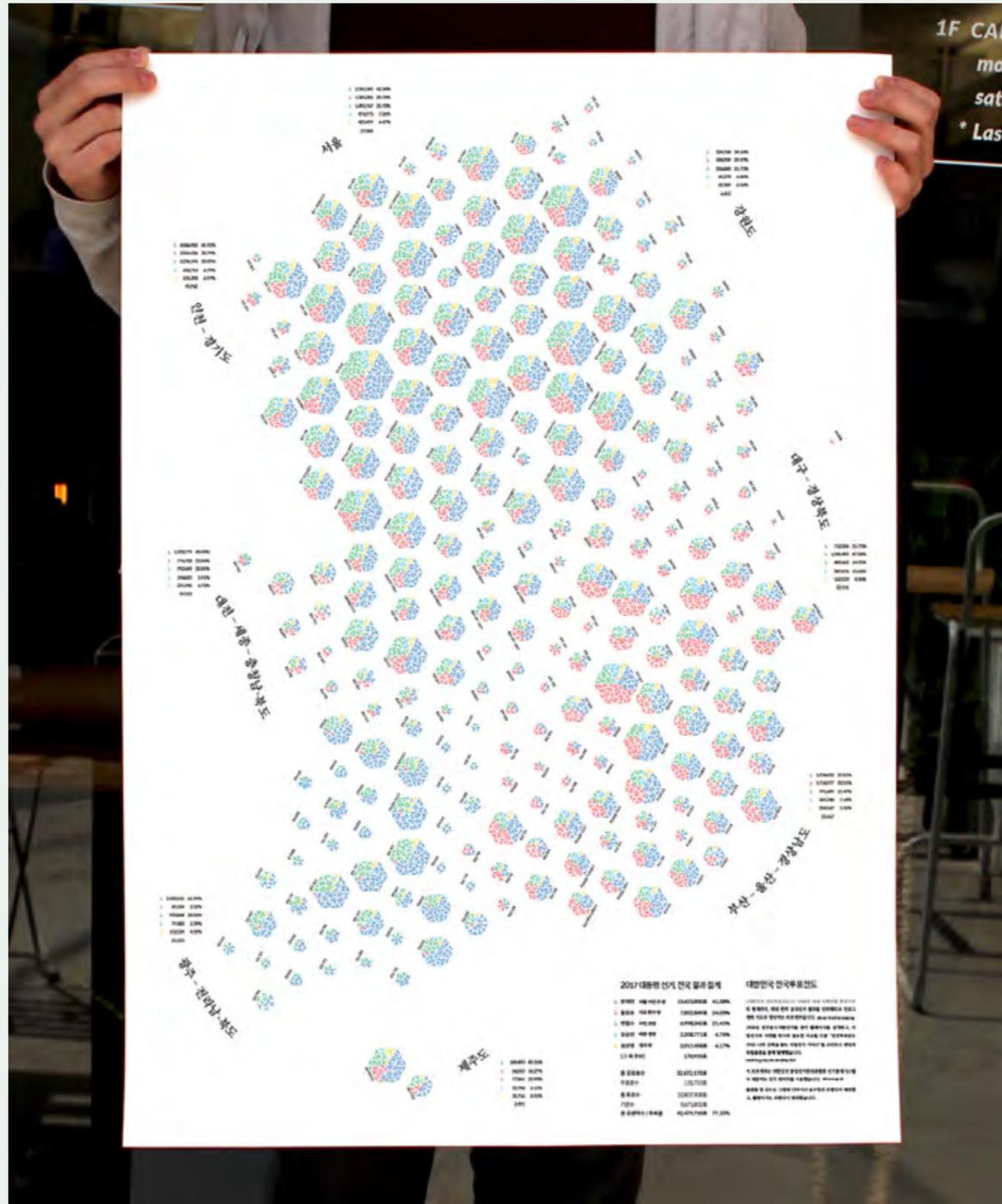
선거제도 시각화: 2012년 한국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비례대표 정당투표 지역구별 득표수)

707 × 1000 mm, 종이 위에 레이저 대형실사출력
Adobe Illustrator
조현익, 2015년 12월.

선거제도 시각화: 2012년 한국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전국 비례대표 정당득표수, 비례대표 당선결과)

707 × 1000 mm, 종이 위에 레이저 대형실사출력
Adobe Illustrator
조현익, 2015년 12월.





전국투표전도 2018: 포스터 리워드 (지도형)

510 × 740 mm, 종이 위에 인디고 출력
 조현익 제작
 Adobe Illustrator
 2018년 5월



전국투표전도 2018: 핀버튼 뱃지 리워드

32 × 32 mm / 44 × 44 mm(원형), 유포지 출력 후 가공
 조현익, 송수영 제작
 Adobe Illustrator
 2018년 5월

전국투표전도 2018: 금속 뱃지 리워드

23 × 23 mm(원형), 금형제작 후 흑니켈도금 및 색칠 후가공
 조현익, 송수영 제작
 Adobe Illustrator
 2018년 5월

- 인포그래픽 요소를 리워드 제품으로 확장

클라우드펀딩에 함께 올릴 리워드(아이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제작되었습니다. 2017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나타내는 인포그래픽 포스터는 인포그래픽의 특성을 가급적 두드러지게 위해, 각 행정구역별 선거 개표결과를 전국 지도의 모양으로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인포그래픽에서 사용된 점 복(卜)자를 문양으로 확장해서 만든 에코백과 뱃지를 제작했습니다. 이는 인포그래픽으로서의 의미보다는, 문양의 조형과 색상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존 인포그래픽에서 사용한 문양의 크기를 확대해서 제작했습니다.



전국투표전도 2018: 에코백 리워드

360 × 420 mm, 면 소재 에코백에 실크스크린
 송수영 제작
 Adobe Illustrator
 2018년 5월

Mind your mind

심리안정 선물세트(“멘탈 응급상자”) 캠페인

캠페인 아이덴티티 디자인, 편집 디자인

2018. 07. ~ 2018. 10.

클라이언트 / 발표매체

김지윤, 상담심리사

Tumblbug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발표

<https://www.tumblbug.com/mindyourmind>

제작 참여

김지윤 (캠페인 기획, 책자 집필, 프로모션 총괄)

조현익 (디자인 컨셉 기획, 책자 편집디자인, 굿즈 디자인)

- Mind Your Mind 프로젝트 소개

“멘탈 응급상자: Mind your mind”는 우울, 불안, 과도한 흥분, 분노 등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해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선물세트입니다. 오감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이템과, 불안정 완화하는 법에 대해 설명하는 가이드북으로 구성됩니다.

Mind your mind는 셀프 수딩Self-soothing이라는 심리학 개념을 사용합니다. 물리적인 행동과 자극을 통해 편안한 오감을 느끼면, 심리적인 불안정을 줄일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신체 자극을 통한 심리적 안정이라는 특징에 착안하여 캠페인의 아이덴티티를 제작, 각종 굿즈 디자인과 패키지에 범용적으로 대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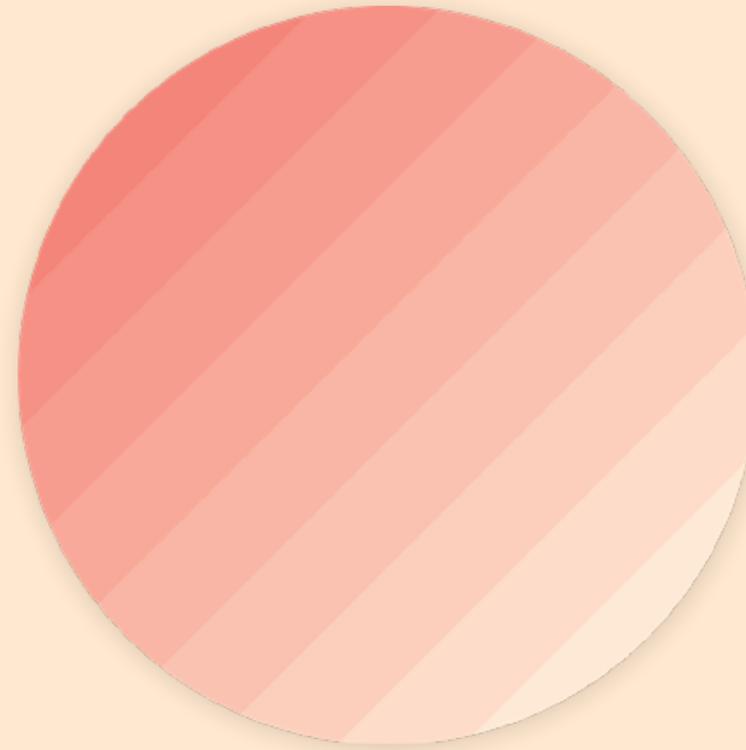


- 프로젝트 아이덴티티 시각화

오감을 이용해 마음을 돌보는 프로젝트인 만큼, 프로젝트의 아이덴티티는 오감을 대상으로 제작했습니다. Mind your mind의 아이덴티티는 우리 몸이 오감을 느끼는 순간, 즉 우리 몸과 자극원이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순간을 시각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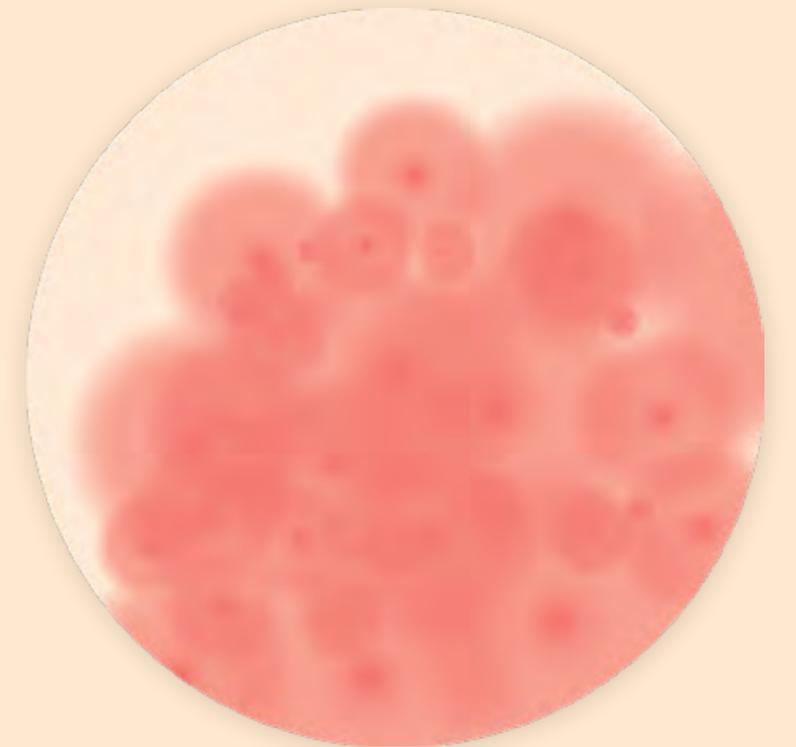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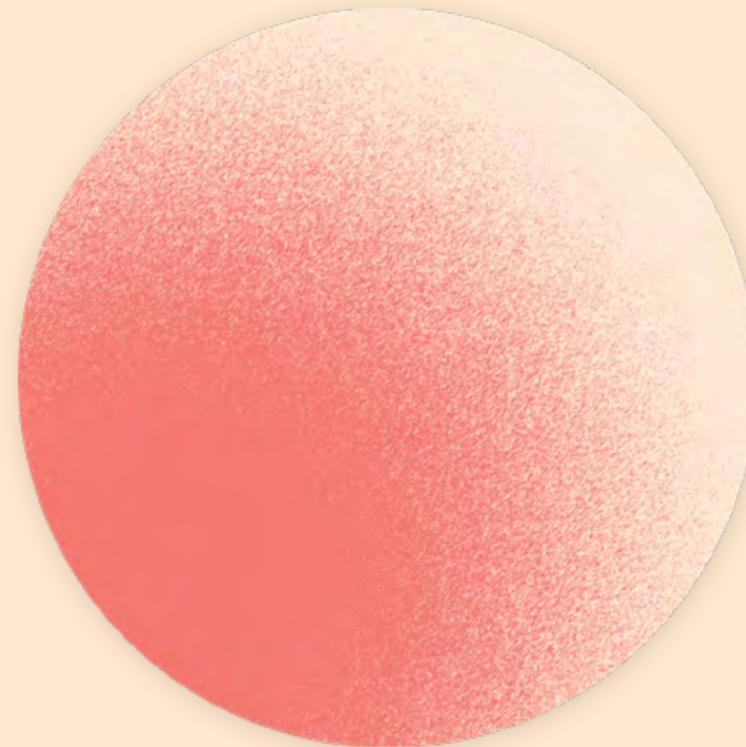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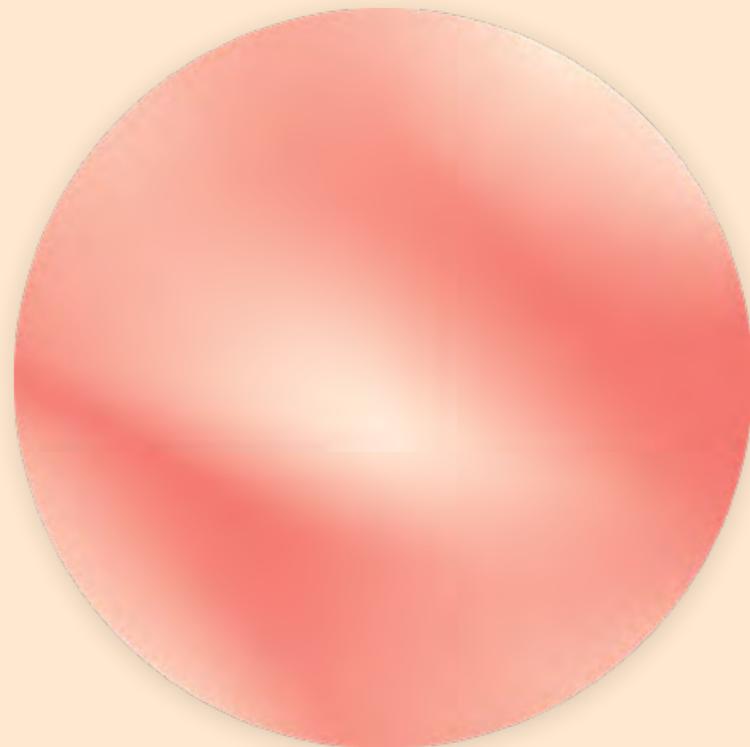
자극원의 다섯 가지 종류, 즉 빛의 명암(시각), 확산되는 파동(청각), 피부를 누르는 압력(촉각), 공기 중의 입자(후각), 액체 중의 입자(미각)를 2도 색상의 음영으로 표현해서, 조형적으로 자극원의 밀도 차이를 부드럽게 느끼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드러운 감각과 감정적인 편안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덴티티 색상은 모든 인류의 신체를 표현할 수 있는 온기 있는 혈색, 노랑과 홍색 사이에 있는 두 개의 색상을 채택했습니다.



Mind your mind: 아이덴티티 기본 패턴 모음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Adobe Illustrator
2018년 8월



Mind your mind: 가이드북

105 × 154 mm (100쪽)
종이 위에 레이저출력, PUR 제본

Mind your mind: 엽서

150 × 100 mm (양면, 3종)
종이 위에 레이저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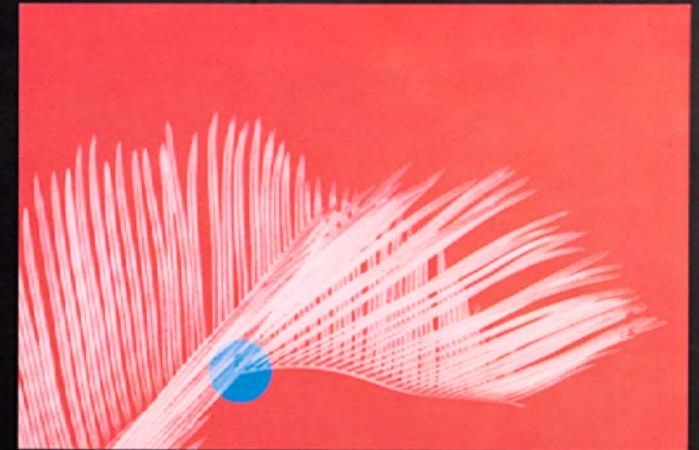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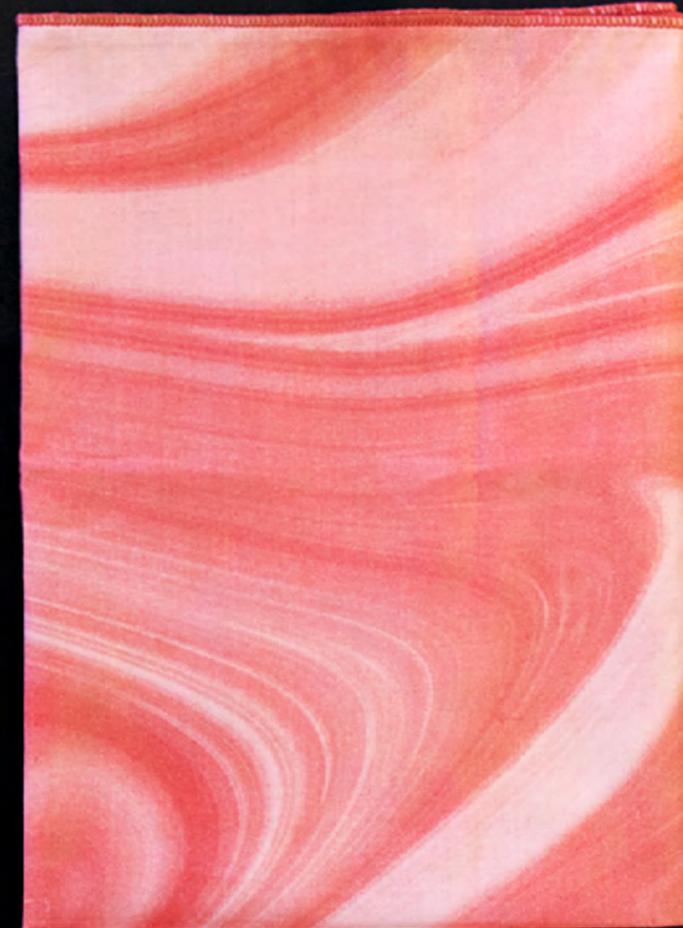
Mind your mind: 리더 코스터

90 × 90 mm (양면)
인조가죽 위에 레이저출력

Mind your mind: 손수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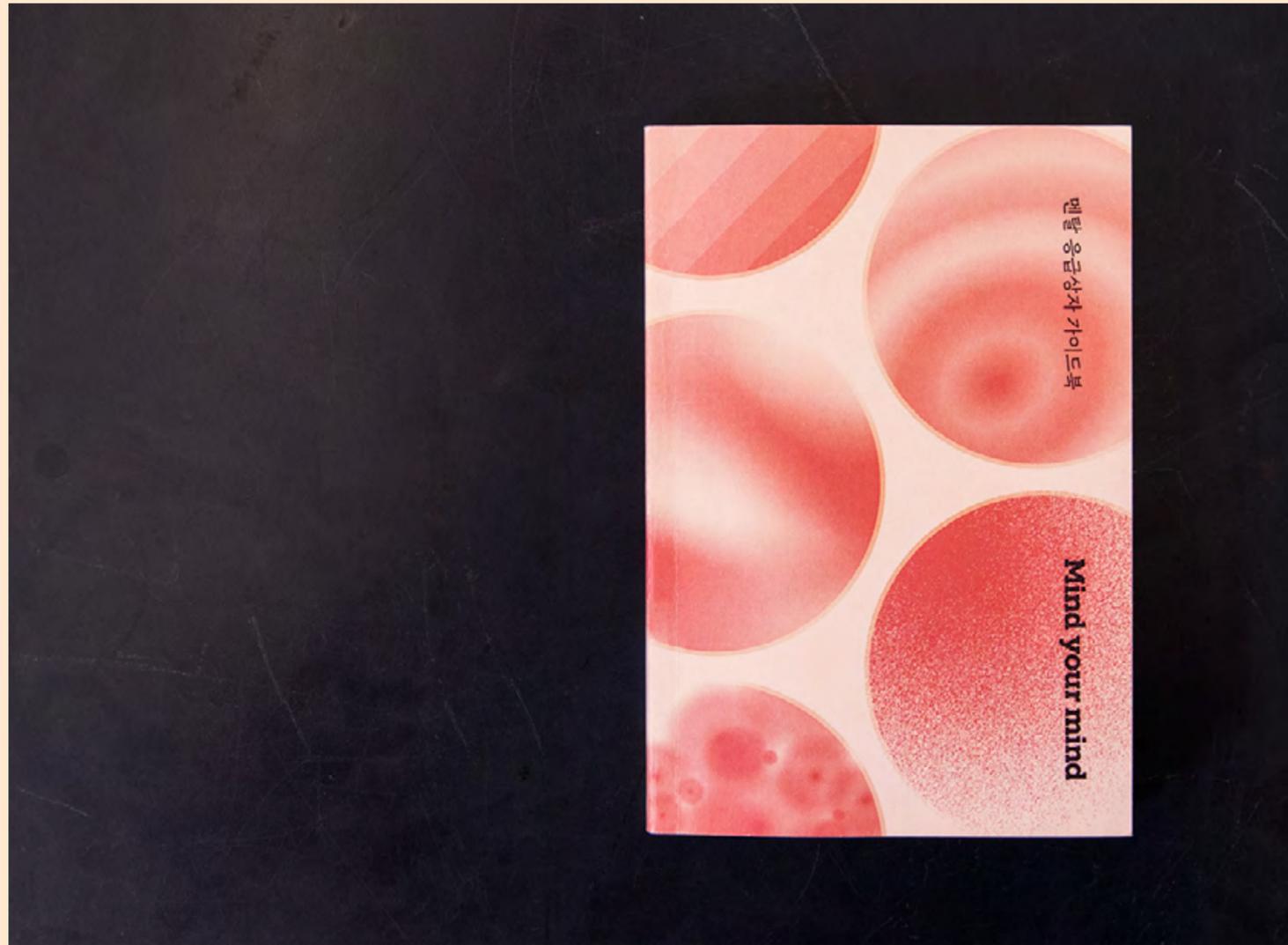
400 × 400 mm
순면(60수 소재) 위에 디지털 나염

캔들, 쿠키, 온열안대 등 기타 구성품은 시중의 상용품이거나,
다른 창작자의 작업물을 주문해서 구매한 것임.



멘탈 응급상자: Mind your mind

다중매체 (오브제 총 4종)
Adobe Illustrator, Adobe Photoshop, Adobe InDesign 사용
2018년 10월



Mind your mind: 가이드북 (책 표지)

105 × 154 mm (100쪽), 종이 위에 레이저출력
김지윤 집필, 조현익 표지 및 편집디자인
Adobe Illustrator, Adobe InDesign
2018년 10월



Mind your mind: 가이드북 (챕터 표지)

105 × 154 mm (100쪽), 종이 위에 레이저출력
김지윤 집필, 조현익 표지 및 편집디자인
Adobe Illustrator, Adobe InDesign
2018년 10월

셀프체크 1: 스트레스 알아보기

당신이 스트레스받는 상황에 있을 때, 이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당신이 어떻게 스트레스에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반응하는지 알아보세요.

Q. 여러분은 총 몇 개가 해당되나요?

Q. 그 중에서, 지금까지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이라고 의식하지 못한 것이 있나요?

Q. 체크된 항목들의 특징점이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ex. 통증, 소화기 문제, ...

Q. 신체의 반응과 감정의 반응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많나요?

몸과 마음의 반응을 엄밀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일상적인 용어로서 '감각'을 몸의 반응, '감정'을 마음의 반응으로 보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둘을 구별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몸과 마음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어떤 것이인가요?

Q. 또, 가장 자주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인가요?

- | | |
|---|---|
| <input type="checkbox"/> 심장박동 증가 | <input type="checkbox"/> 두근거림 |
| <input type="checkbox"/> 땀 | <input type="checkbox"/> 위장장애 |
| <input type="checkbox"/> 복통 | <input type="checkbox"/> 두통 |
| <input type="checkbox"/> 숨가쁨 | <input type="checkbox"/> 피로 |
| <input type="checkbox"/> 이노작용 활발함 | <input type="checkbox"/> 입마름 |
| <input type="checkbox"/> 차가워지는 손, 발, 피부 | <input type="checkbox"/> 근육 긴장 |
| <input type="checkbox"/> 성욕 감소 또는 증가 | <input type="checkbox"/> 수면 장애 |
| <input type="checkbox"/> 분노 | <input type="checkbox"/> 술, 약물의 사용 |
| <input type="checkbox"/> 초조, 불안 | <input type="checkbox"/> 차분하지 못함 |
| <input type="checkbox"/> 짜증 | <input type="checkbox"/> 집중 불가 |
| <input type="checkbox"/> 동기부족 | <input type="checkbox"/> 우울 |
| <input type="checkbox"/> 가슴통증 | <input type="checkbox"/> 사회 기피 |
| <input type="checkbox"/> 흡연 시작 및 증가 | <input type="checkbox"/> 생각이 많아짐 |
| <input type="checkbox"/>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 | <input type="checkbox"/> 높은 혈압 |
| <input type="checkbox"/> 체중 감소 및 증가 | <input type="checkbox"/> 피부 트러블 (발진, 여드름) |

010-011

내 몸에서 소모되는 에너지 줄이기



전기 콘센트를 꽂아놓기만 해도 대기전력이 새어나가듯,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소소한 스트레스에 대응하느라 우리의 에너지도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또 공부나 업무를 하는 동안, 놀고 싶은 마음이나 감정을 억누르는 데에도 조금씩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었을 겁니다. 일상에서 조금씩 방전된 컨디션을 회복하고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정신 에너지 채우기

① 나에게 휴가 선사하기

여행이 좋은 이유 중의 하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던 현실의 무게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다시 말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나를 포장하는 데 쓰고 있던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이처럼 학생, 직장인, 아들딸, 부모 등의 역할타이틀, 책임감은 잠시 내려놓고 그저 '나'로 온전히 존재하는 것이 휴식의 필요조건일지 모릅니다.

성실한 사람일 경우 휴식도 너무 '열심히' 하려다 보니 쉴 틈을 못 주는 경우도 종종 있는 듯합니다. 주말에는 주중에 못 했던 집안일, 보고 싶던 영화 보기 등을 해치우느라 시간이 모자라거나, 휴가 때는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보상이 될 수 있게 열심히 휴가계획을 세워 준비해둔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오겠죠. 집안일이든 휴가든 어떤 것을 하는 동안 몸이 고생하고 있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정신력을 발휘 중이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다시 일하는 일상으로 돌아오면 어떤가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전된 부분도 있는 한편, 피곤해진 부분도 있지 않을까 살짝 걱정되는군요. 또는 선다는 것 자체가 부담되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044-045

Mind your mind: 가이드북 (스트레스 알아보기)

105 × 154 mm (100쪽), 종이 위에 레이저출력
김지윤 집필, 조현익 표지 및 편집디자인
Adobe Illustrator, Adobe InDesign
2018년 10월

Mind your mind: 가이드북 (내 몸에서 소모되는 에너지 줄이기)

105 × 154 mm (100쪽), 종이 위에 레이저출력
김지윤 집필, 조현익 표지 및 편집디자인
Adobe Illustrator, Adobe InDesign
2018년 10월

긍정적인 기운 불어넣기

힘든 일이 사라져도 곧바로 행복해지지 않듯,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었다고 곧바로 긍정적인 기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더 자주 느끼는 것은, (객관적으로) 기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기보다는, 같은 일을 겪어도 (주관적으로) 기분 좋게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같은 일을 겪더라도, 각자 보고 느끼는 바에 자신만의 감정을 능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훈련을 통해, 같은 일상 속에서도 긍정적인 관점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크고 강한 즐거움을 한 번 느끼는 것보다는, 소소한 기쁨을 자주 느끼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최인철, 2018).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의 성격은 어떤 노력이나 연습을 통해 일구어낸 결과이지, 타고난 때부터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내 삶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고 이를 잘 붙들어 두는 심리적인 습관을 갖는 것이 인생을 즐기는 지혜가 되겠지요.

다음에 소개할 내용은 긍정적인 감정을 더 자주 경험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평소 생활방식을 유지하면서 시도

할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기존의 스케줄에 좀 더 다채로움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일이든 무작정 긍정적으로만 봐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은 본디 부정적인 정보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쉽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치우친 관점을 중립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가져오기 위해 긍정적인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붙잡기 연습

여기서 이야기할 내용은, 즐거운 일을 '하는' 법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일상 속에 존재하던 숨은 보석을 '발견하는' 법입니다. 인간에게는 의도에 따라 나에게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선택적 주의'를 발휘할 수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더져 버린 것들이라도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루를 지내며 편안함, 기쁨, 즐거움 등의 좋은 느낌을 (조금이라도) 주는 물건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색의 물건을 바라보거나, 내가 애용하는 물건을 사용하면서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해보세요. 매일 마시는 커피의 향과 맛을

072-073

Mind your mind: 가이드북 (긍정적인 기운 불어넣기)

105 × 154 mm (100쪽), 종이 위에 레이저출력
김지윤 집필, 조현익 표지 및 편집디자인
Adobe Illustrator, Adobe InDesign
2018년 10월

잠을 잘 자기 tip

낮밤 사이클을 유지한다

본인의 성향에 맞게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여, 내게 필요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일 깨어있다가 종일 자는 것보다는, 하루의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사이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클에 적응하면 몸이 시간에 맞춰 호르몬을 내보내서, 잘 시간에 잘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억지로 아침형 인간이 되려 하거나,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때에 따라 잠이 오지 않는 날은 늦게 잠들어도 되지만, 일어나는 시간은 비슷하게 하여 다음날 다시 사이클을 되찾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침대는 잠자리로만 사용한다

불면증 치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침대=잠자리'라는 인식을 몸에 심어두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굳이 침대에서 잠을 청하지 말고 다른 곳에 있다가, 잠이 들 것 같으면 그때 침대에 누워보세요. 또 잠을 청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밝은 정신으로 책이나 영화를 보기 위해 침대 공간을 사용하면, 우리 몸은 침대를 잠자리 공간으로 각인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잠이 올 때만 침대에 눕게 되면, 우리 몸은 침대를 잠자리 공간으로 인식하여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040-041

Mind your mind: 가이드북 (잠을 잘 자기 tip)

105 × 154 mm (100쪽), 종이 위에 레이저출력
김지윤 집필, 조현익 표지 및 편집디자인
Adobe Illustrator, Adobe InDesign
2018년 10월

GLE: 기레기인증시험

GLE: Giregi Licencing Examination

출품

2015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졸업전시 출품작

제작 참여

조현익 (프로젝트 기획, 취재, 시각화, 전시 설치)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편집 디자인

2015. 03. ~ 05., 09. ~ 12.

오늘의 짬방 >> 2면 두 대표의 먹방 보시겠습니다. '화끈한 식신' 김무성 vs '신중한 미식가' 문재인
중요시사 >> 2면 군 급히 출동... 이 물체는 무엇? 연기가 ... 샅으로 땅 파다가 괴물체 발견 '공포'
허세거리 >> 4면 주위에 한 명쯤 있죠. #팁 잘난 체하는 이들을 대하는 10가지 방법

gle newsmass

2015. 5. 1. (금) 16:00 발행.

님의 침묵 (성완중 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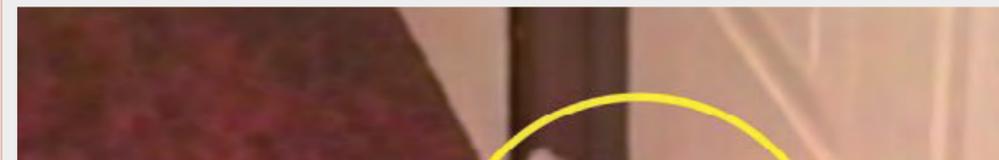
[문화] 인터넷 유머 온라인 커뮤니티서 화제
크게 웃으시고 카톡방에 널리 퍼뜨려주세요~~~^^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회장님은 갔습니다.

뇌물 메모를 남기고 벚꽃나무 숲을 향하여 난 황천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천년만년 나랏돈 빼먹자던 정치인들과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납카로운 돈봉투의 추억은 거물들 운명의 지침(指針)을 돌려놓고 뒷
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그 녀들은 향기로운 님의 돈봉투에 귀먹고 달콤한 님의 뇌물에 눈멀
었습니다.

문틈으로 탈출하는 '미션 임파서블' 멍멍이 (영상자료)

개유연...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 즐거워하는 반응 보여



© (사)대한온라인언론협회 GLE위원회

제 2015-016호



Giregi Licencing Examination

제 136 회 기레기인증시험 문제지

수험번호 _____

이름 _____

생년월일 _____

시험일자 2015. 12. 04

경고:
본 시험지를 허락없이 시험장
밖으로 가져가거나, 복사 또는
사진촬영할 경우

GLE: 제 136회 기레기인증시험 문제지

210 x 250 mm (36쪽)
종이 위에 레이저출력

GLE: 수험표

84 x 190 mm
종이 위에 레이저출력

GLE: 기레기면허인증 (면허증)

84 x 54 mm (양면)
플라스틱 카드 위에 출력

GLE: 적중 개념 50

105 x 74 mm (55장)
종이 및 OHP필름 위에 레이저출력

GLE: 성적표

210 x 297 mm
종이 위에 레이저출력

GLE: 객관식·이론지식영역 답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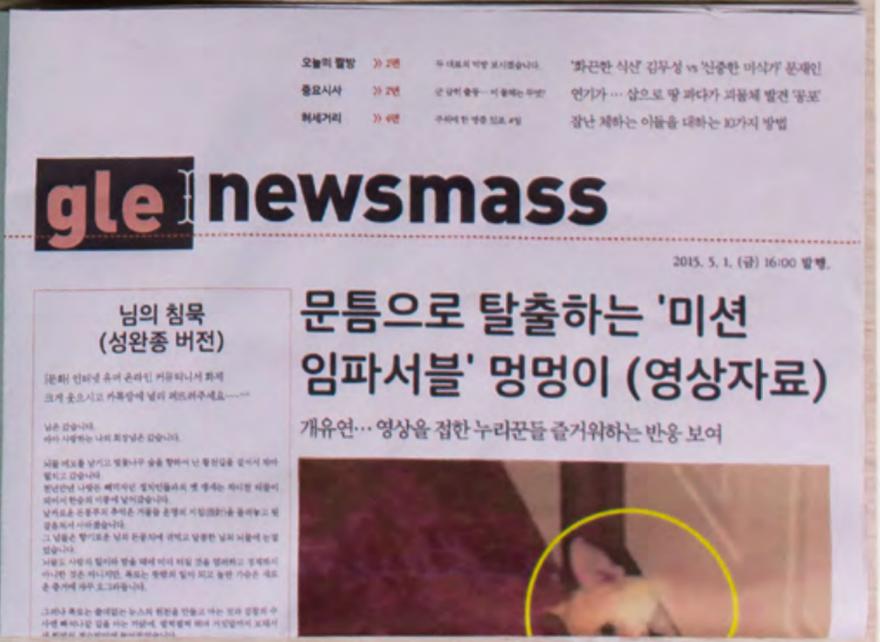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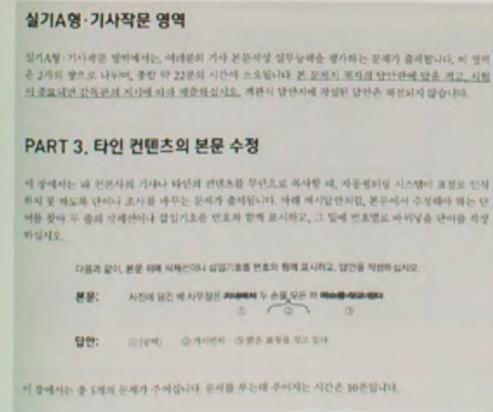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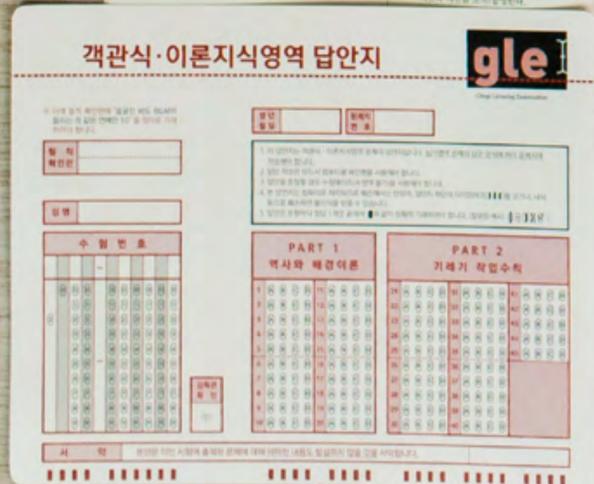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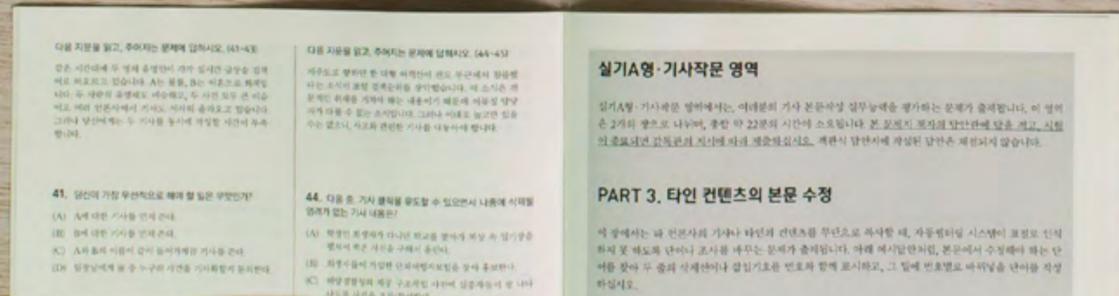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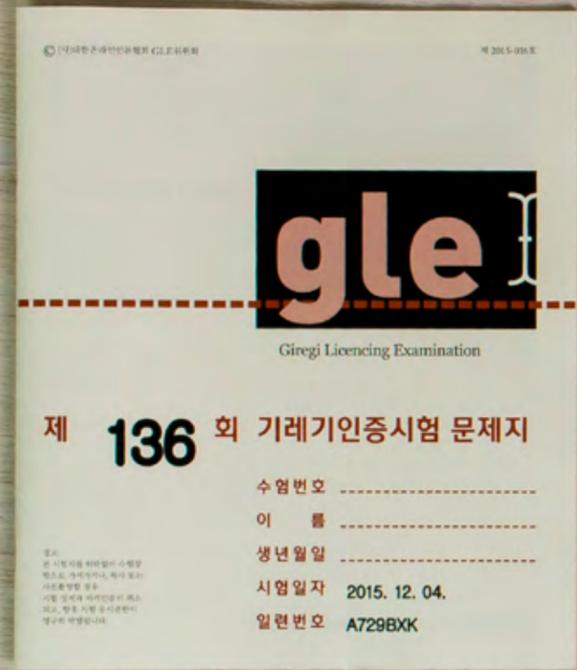
223 x 180 mm
종이 위에 레이저출력

GLE: newsmass (신문)

323 x 470 mm (8면)
종이 위에 윤전인쇄

GLE: 기레기인증시험
Giregi Licencing Examination

다중매체 (오브제 총 8종)
Adobe InDesign, Adobe Illustrator 사용
2015년 12월



gle newsmass

2015. 5. 1. (금) 16:00 발행.

GLE: 아이덴티티 (컬러, 흑백) / GLE: newsmass로의 적용 케이스

Adobe Illustrator 사용
2015년 10월

- GLE와 newsmass의 아이덴티티 시각화

프로젝트 기획단계에 제작한 newsmass의 아이덴티티 로고는 어뷰징 기사의 작성원리를 시각화합니다. 내용을 근거없이 파편적으로 모아서 자극적인 내용으로 재구성하며, 사실관계 파악에 소홀하여 본문 내용이나 사진을 흐린 기사를 한데 모아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시각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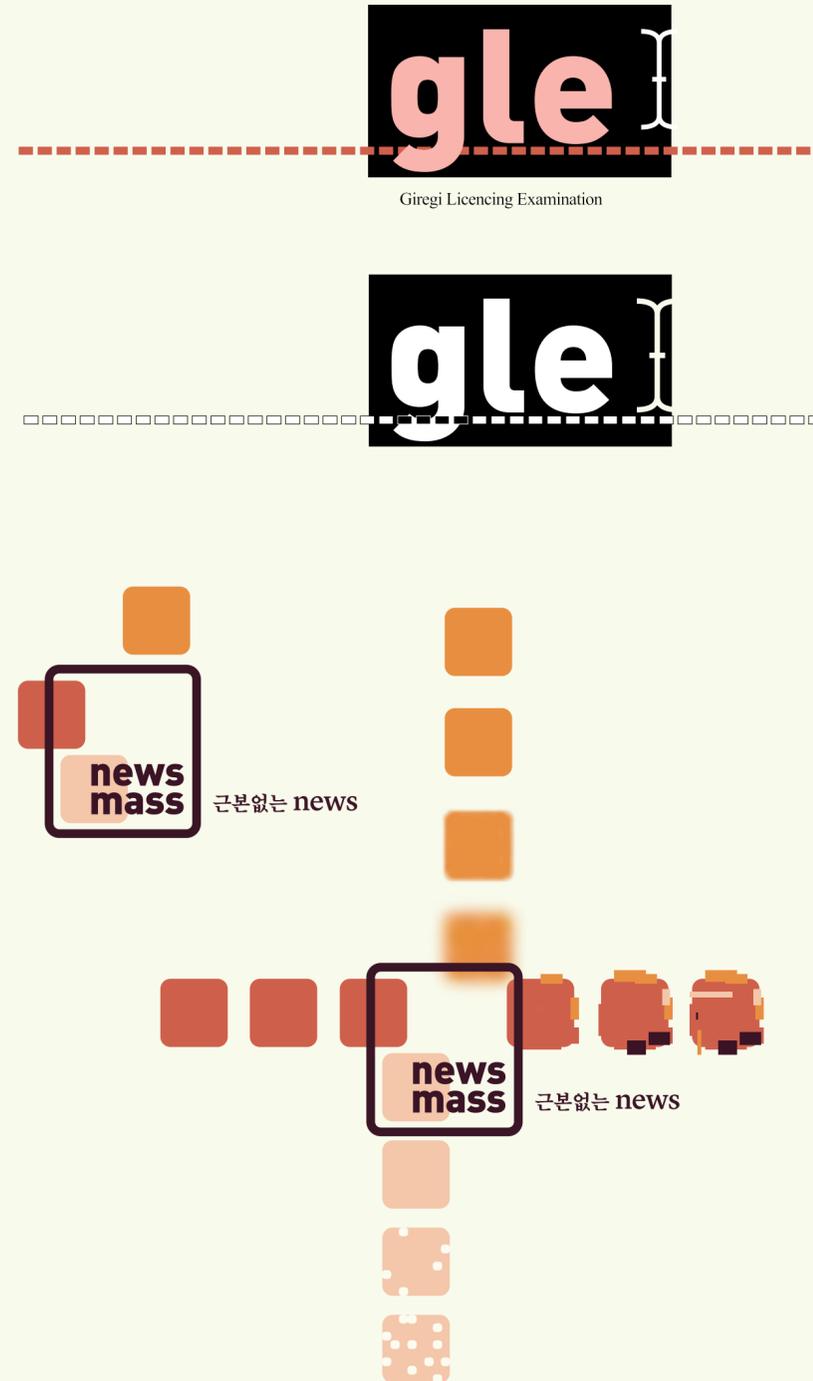
GLE의 아이덴티티 로고는 기자들이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며 급하게 기사를 작성하는 모습을 추상화합니다. 워드프로세서의 커서, 복사/붙여넣기를 위한 블록설정, 맞춤법 오류를 표시하는 점선 밑줄을 조합합니다.

GLE 및 newsmass의 아이덴티티 색상은 어뷰징 기사에 첨부된 사진들로부터 추출합니다. 약 40개의 자극적인 기사 썸네일 사진을 모자이크하여, 자주 사용되며 시인성이 높은 홍색 계열 색상 4종을 선정했습니다. 로고타입에는 어두운 배경색과 소문자를 이용해도 글자의 시인성이 보장되도록 DIN Alternative를 사용합니다.

newsmass: 아이덴티티 (정적 로고, 애니메이션 로고)

Adobe Illustrator, Adobe After Effect 사용
2015년 5월

애니메이션 영상: <https://youtu.be/hfL3K3d7EnA>



- newsmass 신문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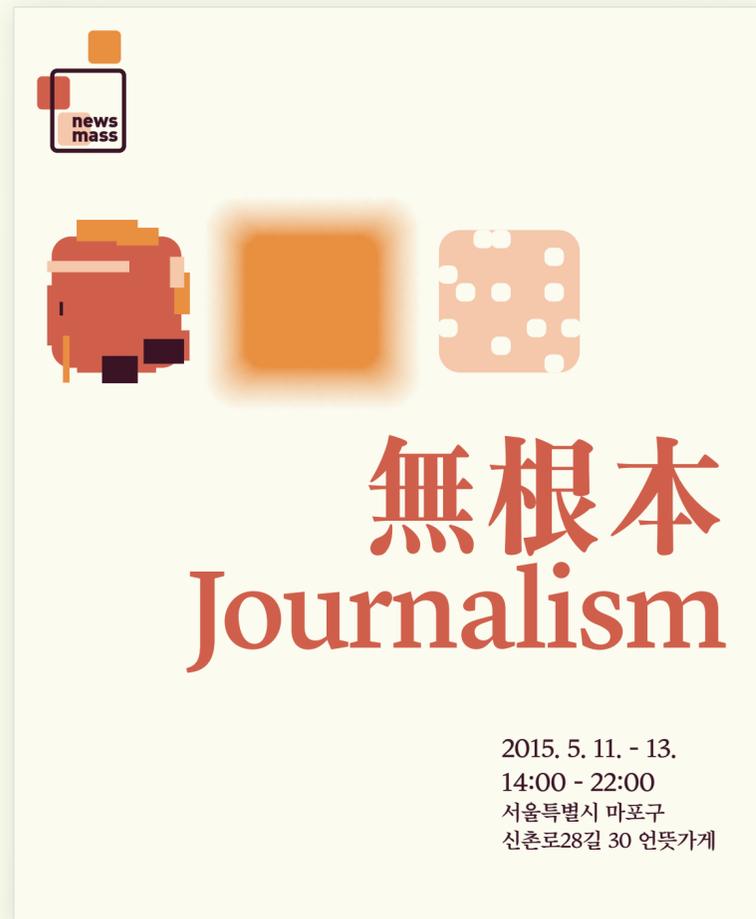
GLE 시험 오브제를 구성하기 전, 먼저 온라인 언론기사를 종이 위의 신문 지면으로 옮겨서 무가지 형태로 발간하는 신문 "뉴스매스newsmass"를 제작합니다. 2015년 5월 1일에 온라인 포털서비스, 각 온라인언론사 웹페이지, 각 언론사의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의 게시물에서 상위에 노출된 기사를 수집합니다. 이를 8면 신문으로 재배열해 인쇄합니다. 2015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언뜻가게'에서, newsmass 런칭 프로모션 컨셉의 개인전시를 진행했습니다.

무근본 저널리즘 無根本 Journalism: 전시 홍보 포스터

420 × 594 mm, 종이 위에 레이저 대형실사출력
Adobe Illustrator 사용
2015년 5월

무근본 저널리즘 無根本 Journalism: 초청장

112 × 136 mm (양면), 종이 위에 레이저출력
Adobe Illustrator 사용
2015년 5월



뉴스매체 newsmass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뉴스를 모든 사람에게
가장 빠르게 전달합니다.

2개월에 걸쳐 준비한
newsmass가 선도하는
미래 언론의 모습을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news mass 협찬.
조현의 기획/제작.

news mass 협찬.
조현의 기획/제작.

2015. 5. 11. -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28길 30 언뜻가게

오늘의 짬방 >> 2편 두 대표의 막방 보시했습니다. '화끈한 식신' 김무성 vs '신중한 미식가' 문재인

중요시사 >> 2편 군 급이 출동... 이 물체는 무엇? 연기가... 삼으로 땅 파다가 괴물체 발견 '공포'

하세거리 >> 4편 주위에 한 명쯤 있죠. #핀 잘난 채하는 이들을 대하는 10가지 방법

2015. 5. 1. (금) 16:00 발행.

님의 침묵 (성완중 버전)

[문화] 인터넷 유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 크게 웃으시고 카톡방에 널리 퍼뜨려주세요...^^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회장님은 갔습니다.

나를 메모를 남기고 뿔뿔나무 술을 향하여 난 황천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천년만년 나라든 백만자던 정치인들과의 옛 맹세는 차디찬 터널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문부부의 주먹은 거울들 운명의 자침(自針)을 돌려놓고 뒀 갈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님들은 향기로운 님의 문봉치에 귀고리 달았던 님의 뇌물에 눈멀었습니다. 뇌물로 사방의 일과 밤을 때에 미리 퇴직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폭로는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증거해 주무 으르러옵니다.

그나마 폭로는 쓸데없는 뉴스의 원천을 만들고 가는 것과 검찰의 수사권 빼앗아갈 길을 아는 까닭에, 필적필적 뿔머 거것까지 보태서 재 회장의 정수(正수)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밤을 때에 퇴직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퇴직 때 다시 빼져 나갈 것을 믿습니다. 아아 남은 감자라는 나는 뇌물은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정치가들의 말을 못 믿는 민초들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헤고 씹습니다. -작자 미상

이 시가 발표된 후 사람들 사이에는 이 시와 함께 다음의 한시가 함께 불렀다고 한다.

贈李秀堯 (중기이수연): 갑자기 이에게 몇천 만원만 건네달라지 夢來論多長 (몽래논다란): 꿈도 이뤄졌지만 말도 말았네 語海空瀟瀟 (야해공갈랑): 세 생장에 대고 목마른 일 무릇인지

최은미 最顯封翁言 (최고봉발언), 최익희 고 발(부경부패) 들어야겠노라 기명을 뚫틀기 鄭香滋面龐 (정향일면애), 비술의 향기 얼굴 골짜기 넘쳐 흥되고 鄭鄒打骨耐 (정주두하내): 폭탄이 던져졌도 견디내지만 七打無生理 (이바오우리): 비수 같은 한방이 허한 귀부총머

'일본여자의 복수' 바람 핀 남친 애플 제품 욕조에 빠뜨려



일본 여자가 애플 아이폰을 욕조에 빠뜨려 버린 후, 욕조 물을 갈아내고 아이폰을 건져내려 하는 모습이다. (출처: 유튜브)

바람을 피운 남자친구가 달콤한 (2) 방법으로 복수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SNS에서는 트위터 이용자 'Yookhyesly2'는 "바람 피운 것이 들렸는데 전자제품을 모조리 욕조에 박아버린 건 너무하다"라며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목격하고는 화가 난 나머지 욕조 물을 차웠는데 욕조에 아이폰과 아이폰이 들어 빠드린 것은 너무하다라는 글은 동남아시아의 애플 제품을 모두 빼드린 한 일본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5,000명 이상 리트윗되며 뜨거운 반대에 따르면 이 여성은 어느 날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목격했다. 이에 화가 난 여성은 남자친구를 욕조에 빠뜨려 버린 후, 욕조 물을 갈아내고 아이폰을 건져내려 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바람을 피우는 것을 목격하고는 화가 난 나머지 욕조 물을 차웠는데 욕조에 아이폰과 아이폰이 들어 빠드린 것은 너무하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 트윗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1만 5,000명 이상 리트윗되며 뜨거운 반대에 따르면 이 여성은 어느 날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알려지며 통쾌하다는 반응과 함께 안타깝다는 의견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신년운세/사주/궁합/타로/운세 전화상담 희망찬 2015 올미년을 맞이하세요 사주전문 060.000.0000

비서 합격 시대에도 2015년 비서 합격률1위 인강. 워드캠...

동양최대규모의 워터파크와 카지노, 스키장이 있는 곳! XX정선호텔 10년 임대차계약서 발행 월 110만원 수익 실투자액 6,000만원대

수지 런던 '루이비통' 가격... '충격'

로또 1등 당첨자 '자동 만되는 이유 있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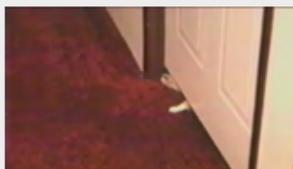
논&고성형은 XXX성형외과 더보기 인성 절대쓰자마세요, 연구결과가?

>>동영상 캡처 2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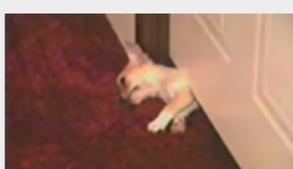
문틈으로 탈출하는 '미션 임파서블' 멍멍이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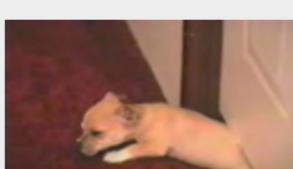
음.그냥 어떤 가정집의 평범한 문이네요.



??? 아 문에서 무언가가 스밀스밀 빠져나오려고 하네요?



아하... 귀여운 멍멍이가 나오려고 하네요, 근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힘을 내 멍멍아! 조금만 더 기다리오면 돼!!!



우와.. 멍멍이가 드디어 탈출했어요..!해해 이제 바로 개유언이아유구.."



예은 우리 멍멍이, 참... 귀엽군!!^^

오늘의 중요시사



연기가...삼으로 땅 파다가 괴물체 발견 '공포'

동두천 발에서 한국전쟁때 쓰던 연막탄 발견 30일 아침 7시 10분쯤 경기도 동두천시의 밤에서 한국전쟁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연막탄이 발견됐습니다. 마을 주민이 땅을 파다가 심하게 녹아 온 물체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해 목격자인 중 일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군 폭발물처리단은 폭발물 의심 물체가 한국전쟁 때 것으로 추정되는 '백만연막탄'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대공 총리장이 없게 해주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먹짬

'화끈한 식신' 김무성 vs '신중한 미식가' 문재인

요즘 먹는 장편이 부각되는 방송을 흔히 '먹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먹방의 주인공은 문재인 그리고 김무성 대표. 이 두 대표가 4월 22일 재보궐선거 지역구에 가서 유세하는 영상이 있는데 공히 먹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두 대표의 막방 보시했습니다.

먼저 김무성 대표입니다. 지금 횡집에서 회를 다듬고 배운방을 끓이는 모습인데, 초반에 4.29재보궐선거를 준비하면서, 지친 빨간 알치마와 두 손가락이... 지친 연설이 삼시세끼고 케이팝방송을 중 보방송 해서 차츰카렌트로 새옹의입니다. 차츰차츰 갈라지지는 못하고 노미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오히려 지릴 때는 너무 광하던 것이 아니라, 김대표 좀 사부님께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요인데 김대표의 출연이 굉장히 많이 적용합니다. 김대표는 어떤 말을 지체하는 말도 지린 모습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지만 귀엽거나 친근감이 가네요. 그러니까 사면들한테 다가려는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조인 일고 뭐고 뭐고 말이예요. 또 온라인 사는 것 같아요. 논&고성형은 XXX 성형외과

그런데 왜 저렇게 먹거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런 때는 너무 광하던 것이 아니라, 김대표 좀 사부님께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요인데 김대표의 출연이 굉장히 많이 적용합니다. 김대표는 어떤 말을 지체하는 말도 지린 모습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지만 귀엽거나 친근감이 가네요. 그러니까 사면들한테 다가려는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조인 일고 뭐고 뭐고 말이예요. 또 온라인 사는 것 같아요. 논&고성형은 XXX 성형외과

그런데 왜 저렇게 먹거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런 때는 너무 광하던 것이 아니라, 김대표 좀 사부님께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요인데 김대표의 출연이 굉장히 많이 적용합니다. 김대표는 어떤 말을 지체하는 말도 지린 모습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지만 귀엽거나 친근감이 가네요. 그러니까 사면들한테 다가려는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조인 일고 뭐고 뭐고 말이예요. 또 온라인 사는 것 같아요. 논&고성형은 XXX 성형외과

그런데 왜 저렇게 먹거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런 때는 너무 광하던 것이 아니라, 김대표 좀 사부님께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요인데 김대표의 출연이 굉장히 많이 적용합니다. 김대표는 어떤 말을 지체하는 말도 지린 모습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지만 귀엽거나 친근감이 가네요. 그러니까 사면들한테 다가려는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조인 일고 뭐고 뭐고 말이예요. 또 온라인 사는 것 같아요. 논&고성형은 XXX 성형외과

그런데 왜 저렇게 먹거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런 때는 너무 광하던 것이 아니라, 김대표 좀 사부님께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요인데 김대표의 출연이 굉장히 많이 적용합니다. 김대표는 어떤 말을 지체하는 말도 지린 모습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지만 귀엽거나 친근감이 가네요. 그러니까 사면들한테 다가려는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조인 일고 뭐고 뭐고 말이예요. 또 온라인 사는 것 같아요. 논&고성형은 XXX 성형외과

그런데 왜 저렇게 먹거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런 때는 너무 광하던 것이 아니라, 김대표 좀 사부님께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요인데 김대표의 출연이 굉장히 많이 적용합니다. 김대표는 어떤 말을 지체하는 말도 지린 모습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지만 귀엽거나 친근감이 가네요. 그러니까 사면들한테 다가려는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조인 일고 뭐고 뭐고 말이예요. 또 온라인 사는 것 같아요. 논&고성형은 XXX 성형외과

그런데 왜 저렇게 먹거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런 때는 너무 광하던 것이 아니라, 김대표 좀 사부님께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요인데 김대표의 출연이 굉장히 많이 적용합니다. 김대표는 어떤 말을 지체하는 말도 지린 모습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지만 귀엽거나 친근감이 가네요. 그러니까 사면들한테 다가려는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조인 일고 뭐고 뭐고 말이예요. 또 온라인 사는 것 같아요. 논&고성형은 XXX 성형외과

그런데 왜 저렇게 먹거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런 때는 너무 광하던 것이 아니라, 김대표 좀 사부님께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요인데 김대표의 출연이 굉장히 많이 적용합니다. 김대표는 어떤 말을 지체하는 말도 지린 모습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지만 귀엽거나 친근감이 가네요. 그러니까 사면들한테 다가려는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조인 일고 뭐고 뭐고 말이예요. 또 온라인 사는 것 같아요. 논&고성형은 XXX 성형외과

여자가 먼저다: 오늘의 중요 화제女

대륙女가 성형해서라도 닮고 싶은 여자 8명

지난 주, 중국의 포털인 '텐센트 QQ'가 중국 여성들이 성형을 해서라도 닮고 싶은 유명인 8명을 선정했습니다.

#판빙빙 영화배우: 168cm, 55kg 1981년 9월 16일생 대륙의 미를 대표하는 여신이죠. 원 독적인 아바를 둔 혼혈인 안젤라베이비. 입체적인 이목구비와 손바닥만 할 만큼 지닌 전형적인 미인상입니다. 다. 2014년 한 때의 보도에 따르면, 강남의 성형외과를 찾은 여성들 중 많은 수가 안젤라베이비를 롤모델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안젤라베이비 (Angelababy; 楊穎) 모델: 168cm, 45kg 1990년 2월 28일생 독적인 아바를 둔 혼혈인 안젤라베이비. 입체적인 이목구비와 손바닥만 할 만큼 지닌 전형적인 미인상입니다. 다. 2014년 한 때의 보도에 따르면, 강남의 성형외과를 찾은 여성들 중 많은 수가 안젤라베이비를 롤모델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양미 영화배우: 168cm, 45kg 1986년 9월 12일생 아이 때부터 드라마 촬영을 해 온 양미.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인기가 대단합니다. 키다란 눈, 높은 코, 타원형 얼굴을 지닌 그녀 역시,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은 얼굴로 꼽혔습니다.	#김태희 모델: 162cm, 45kg 1980년 3월 29일생, 가장 잘 알려진 배우는 유방인 중에 양미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김태희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배우는 양미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김태희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배우는 양미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김태희입니다.~	#유리사 (한민애) 모델 모바일 게임의 모델인 유리사. 이전에 무리행에서 활동하며 건담여신으로 인기를 끌었던 배우입니다. 그런 그녀가 최근 중국에서 '생활을 거스르는 바비인형'이라고 불리며, 한국시 성형의 새로운 롤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서 합격 시대에도 2015년 비서 합격률1위 인강. 워드캠... 수지 런던 '루이비통' 가격... '충격'
--	--	--	--	--	---



조폭 아줌마 온몸으로 막아낸 20대 '사랑女'... 미모도 마음씨도 대박

“조폭 막은 사랑女” 랑 결혼하고 싶다” 男 사심 폭발 “예쁘고 용감한 그녀” “진짜 예쁘다” 폭풍 칭찬

‘조폭 막은 사랑女’ 랑 결혼하고 싶다” 男 사심 폭발 “예쁘고 용감한 그녀” “진짜 예쁘다” 폭풍 칭찬



동양최대규모의 워터파크와 카지노, 스키장이 있는 곳 XX정선호텔 10년 임대차계약서 발행 월 110만원 수익 실투자액 6,000만원대

신년운세/사주/궁합/타로/운세 전화상담 희망찬 2015 올미년을 맞이하세요 사주전문 060.000.0000

수지 런던 '루이비통' 가격... '충격'

로또 1등 당첨자 '자동 만되는 이유 있더라'

논&고성형은 XXX성형외과 더보기 인성 절대쓰자마세요, 연구결과가?

비서 합격 시대에도 2015년 비서 합격률1위 인강. 워드캠...

동양최대규모의 워터파크와 카지노, 스키장이 있는 곳 XX정선호텔 10년 임대차계약서 발행 월 110만원 수익 실투자액 6,000만원대

신년운세/사주/궁합/타로/운세 전화상담 희망찬 2015 올미년을 맞이하세요 사주전문 060.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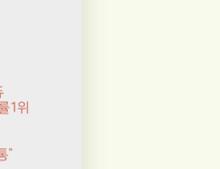
수지 런던 '루이비통' 가격... '충격'

로또 1등 당첨자 '자동 만되는 이유 있더라'

논&고성형은 XXX성형외과 더보기 인성 절대쓰자마세요, 연구결과가?

>>동영상 캡처 2편에 계속.

오늘의 중요시사



연기가...삼으로 땅 파다가 괴물체 발견 '공포'

오늘의 주요 먹짬

'화끈한 식신' 김무성 vs '신중한 미식가' 문재인

요즘 먹는 장편이 부각되는 방송을 흔히 '먹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먹방의 주인공은 문재인 그리고 김무성 대표. 이 두 대표가 4월 22일 재보궐선거 지역구에 가서 유세하는 영상이 있는데 공히 먹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두 대표의 막방 보시했습니다.

먼저 김무성 대표입니다. 지금 횡집에서 회를 다듬고 배운방을 끓이는 모습인데, 초반에 4.29재보궐선거를 준비하면서, 지친 빨간 알치마와 두 손가락이... 지친 연설이 삼시세끼고 케이팝방송을 중 보방송 해서 차츰카렌트로 새옹의입니다. 차츰차츰 갈라지지는 못하고 노미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오히려 지릴 때는 너무 광하던 것이 아니라, 김대표 좀 사부님께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요인데 김대표의 출연이 굉장히 많이 적용합니다. 김대표는 어떤 말을 지체하는 말도 지린 모습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지만 귀엽거나 친근감이 가네요. 그러니까 사면들한테 다가려는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조인 일고 뭐고 뭐고 말이예요. 또 온라인 사는 것 같아요. 논&고성형은 XXX 성형외과

그런데 왜 저렇게 먹거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런 때는 너무 광하던 것이 아니라, 김대표 좀 사부님께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요인데 김대표의 출연이 굉장히 많이 적용합니다. 김대표는 어떤 말을 지체하는 말도 지린 모습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지만 귀엽거나 친근감이 가네요. 그러니까 사면들한테 다가려는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조인 일고 뭐고 뭐고 말이예요. 또 온라인 사는 것 같아요. 논&고성형은 XXX 성형외과

그런데 왜 저렇게 먹거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런 때는 너무 광하던 것이 아니라, 김대표 좀 사부님께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요인데 김대표의 출연이 굉장히 많이 적용합니다. 김대표는 어떤 말을 지체하는 말도 지린 모습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지만 귀엽거나 친근감이 가네요. 그러니까 사면들한테 다가려는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조인 일고 뭐고 뭐고 말이예요. 또 온라인 사는 것 같아요. 논&고성형은 XXX 성형외과

그런데 왜 저렇게 먹거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런 때는 너무 광하던 것이 아니라, 김대표 좀 사부님께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요인데 김대표의 출연이 굉장히 많이 적용합니다. 김대표는 어떤 말을 지체하는 말도 지린 모습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지만 귀엽거나 친근감이 가네요. 그러니까 사면들한테 다가려는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조인 일고 뭐고 뭐고 말이예요. 또 온라인 사는 것 같아요. 논&고성형은 XXX 성형외과

그런데 왜 저렇게 먹거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런 때는 너무 광하던 것이 아니라, 김대표 좀 사부님께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요인데 김대표의 출연이 굉장히 많이 적용합니다. 김대표는 어떤 말을 지체하는 말도 지린 모습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지만 귀엽거나 친근감이 가네요. 그러니까 사면들한테 다가려는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조인 일고 뭐고 뭐고 말이예요. 또 온라인 사는 것 같아요. 논&고성형은 XXX 성형외과

그런데 왜 저렇게 먹거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런 때는 너무 광하던 것이 아니라, 김대표 좀 사부님께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요인데 김대표의 출연이 굉장히 많이 적용합니다. 김대표는 어떤 말을 지체하는 말도 지린 모습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지만 귀엽거나 친근감이 가네요. 그러니까 사면들한테 다가려는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조인 일고 뭐고 뭐고 말이예요. 또 온라인 사는 것 같아요. 논&고성형은 XXX 성형외과

그런데 왜 저렇게 먹거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런 때는 너무 광하던 것이 아니라, 김대표 좀 사부님께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요인데 김대표의 출연이 굉장히 많이 적용합니다. 김대표는 어떤 말을 지체하는 말도 지린 모습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지만 귀엽거나 친근감이 가네요. 그러니까 사면들한테 다가려는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조인 일고 뭐고 뭐고 말이예요. 또 온라인 사는 것 같아요. 논&고성형은 XXX 성형외과

그런데 왜 저렇게 먹거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런 때는 너무 광하던 것이 아니라, 김대표 좀 사부님께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요인데 김대표의 출연이 굉장히 많이 적용합니다. 김대표는 어떤 말을 지체하는 말도 지린 모습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지만 귀엽거나 친근감이 가네요. 그러니까 사면들한테 다가려는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조인 일고 뭐고 뭐고 말이예요. 또 온라인 사는 것 같아요. 논&고성형은 XXX 성형외과

그런데 왜 저렇게 먹거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런 때는 너무 광하던 것이 아니라, 김대표 좀 사부님께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요인데 김대표의 출연이 굉장히 많이 적용합니다. 김대표는 어떤 말을 지체하는 말도 지린 모습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지만 귀엽거나 친근감이 가네요. 그러니까 사면들한테 다가려는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조인 일고 뭐고 뭐고 말이예요. 또 온라인 사는 것 같아요. 논&고성형은 XXX 성형외과

그런데 왜 저렇게 먹거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런 때는 너무 광하던 것이 아니라, 김대표 좀 사부님께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요인데 김대표의 출연이 굉장히 많이 적용합니다. 김대표는 어떤 말을 지체하는 말도 지린 모습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지만 귀엽거나 친근감이 가네요. 그러니까 사면들한테 다가려는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조인 일고 뭐고 뭐고 말이예요. 또 온라인 사는 것 같아요. 논&고성형은 XXX 성형외과

그런데 왜 저렇게 먹거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런 때는 너무 광하던 것이 아니라, 김대표 좀 사부님께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요인데 김대표의 출연이 굉장히 많이 적용합니다. 김대표는 어떤 말을 지체하는 말도 지린 모습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지만 귀엽거나 친근감이 가네요. 그러니까 사면들한테 다가려는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조인 일고 뭐고 뭐고 말이예요. 또 온라인 사는 것 같아요. 논&고성형은 XXX 성형외과

Liberact 연극 홍보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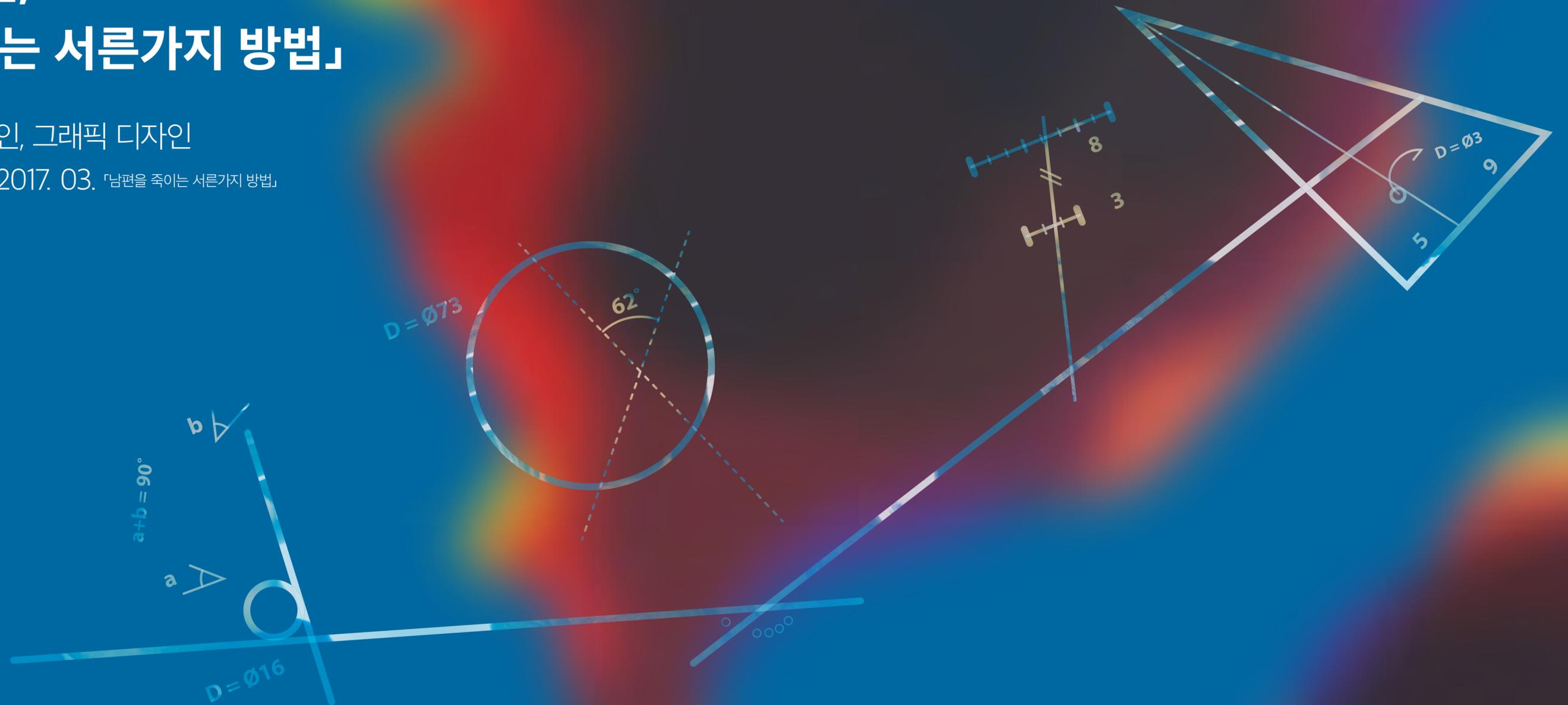
「대학살의 신」,
「남편을 죽이는 서른가지 방법」

공연 아이덴티티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2015. 02. 「대학살의 신」 / 2017. 03. 「남편을 죽이는 서른가지 방법」

클라이언트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연극부 Liberact

제작 참여
조현익 (디자인 컨셉 기획, 사진촬영, 시각화)



대학살의 신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연극부
LIBERACT 2015 봄 정기공연



2015. 3. 10. ~ 11. 16:00 / 19:00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

2015년 3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연극부 리버랙트Liberact는 “대학살의 신God of Carnage” 연극을 올립니다. “대학살의 신”에서, 등장인물인 두 쌍의 부부는 싸우고 돌아온 자녀들의 체면치레를 하려고 서로 치졸하게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배우가 인위적으로 웃는 표정과, 이를 ‘기하학적으로’ 분석한 오브제를 강조하여, 등장인물의 가식적인 모습을 살리려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하학적 오브제를 아이덴티티로 사용하여, 공연 홍보용 포스터와 팸플릿, 그리고 신입 멤버 모집공고를 디자인하였습니다.

대학살의 신: 2015 리버랙트 봄 정기공연
(포스터)

594× 420 mm, 종이 위에 옵셋 인쇄
Adobe Photoshop, Adobe Illustrator
2015년 2월





박수현 진현 엄마
프리랜서 작가.
억지로 웃으면 62도의 각도로
팔자주름이 생긴다.

이진형 진현 아빠
생활용품 매장 사장.
억지로 웃을 때 입꼬리의
곡률반지름 = 3mm이다.

서영민 민수 아빠
변호사.
억지로 웃으면
미간과 입꼬리의 각도의 합이
90도가 된다.

김수민 민수 엄마
핀드매니저.
억지로 웃을 때
입의 길이 : 얼굴 폭 = 3:8.

Liberaact 연극시대 역대 공연

2012. 11. 제1회 정기공연.	시라노: 연애조작단 연출 김유민 부연출 나윤희 원작가 김현석(영화)	2013. 2. 제2회 정기공연.	서른 사람들 연출 최영은 부연출 김유민 원작가 장진	2013. 2. 제1회 세트 공연. (자유전공학부 새내기 새로배움터)	모든 것은 타이밍 연출 나윤희 원작 David Ives 작 <All in the Timing> 중 "Sure Thing"
2013. 3. 제2회 정기공연.	Ten Angry Men 연출 조현익 부연출 신재영 나윤희 원작가 Reginald Rose	2014. 2. 제2회 세트 공연.	모든 것은 타이밍 연출 김종석 부연출 장동환	2015. 2. 제3회 세트 공연.	검탈 연출 장동환 손소원 원작 Neil Simon 작 <Good Doctor> 중 "The Seduction"
2014. 3. 제4회 정기공연.	도덕적 도둑 (Non tutti i ladri vengono per nuocere) 연출 강현욱 부연출 노재영 윤재성 원작가 Dario Fo	2015. 3. 제5회 정기공연.	대학살의 신 (Le Dieu du carnage) 연출 노현선 원작가 Yasmina Reza		
2015. 3. 제6회 정기공연.	대학살의 신 (Le Dieu du carnage) 연출 노현선 원작가 Yasmina Reza				

어느 날, 11살의 두 남자아이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 한 아이의 앞니 두 개가 부러지는 사고가 난다. 아이들 싸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한 거실에 모인 두 쌍의 부부. 아름다운 거실에서 벌어지는 우아한 부부들의... 최악의 하루!

연락처.
010.5736.4464 (동장 이진형)
facebook.com/LiberaactCLS (공식 페이스북북)

LIBERACT와 함께 할 신입 멤버를 모집합니다.

지원서 마감. 2015. 3. 16.(월) 18:00
동아리방(서울대학교 220동 3층 328호) 앞에 놓인 지원서를 작성하여, 같은 곳 제출함에 제출한 뒤, 010.5736.4464에게 문자메세지로 알려주세요.

면접 시작. 2015. 3. 16.(월) 19:00
서울대학교 220동 3층 자유전공학부 동아리방(328호) 이 시간에 참석 불가한 경우에도 010.5736.4464로 연락주세요.

Liberaact에서는 이런 활동을 합니다.
학기 중에는 주 1회 정기모임을 통해 연극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프로그램 진행합니다. 그 중에는 연 1-2회의 "비공개 세미나 공연"이 포함됩니다. 배우와 스태프의 역할을 연습하는 가벼운 소규모 공연입니다.
방학(4학기 초)에는 정기공연 또는 세트공연 연습 및 준비작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배우, 기획, 스태프(무대소품/음향/조명/의상/분장 등)이 될 수 있고, 또는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체 연극관람이나 모임 후의 뒤편이, MTD 특점이 있습니다. 아, Liberaact에서는 술을 잘 마시든 못 마시든, 알아서 자기가 즐기며 마실 만큼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소속 단과대학이나 학번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도 자유전 공학부 소속이 아닌 공연진 2명이 있고, 학번으로는 09, 12, 13, 14학번이 모두 참가했습니다.
다만, 적어도 2개 학기는 함께 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나는 끼가 없어서 배우같은 건 못 하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쌓은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설마 그 정도를 여러분에게 못 가르쳐주겠습니까!

대학살의 신
Le Dieu du Carnage ("God of Carnage")

프랑스 극작가 야스미나 레자Yasmina Reza가 쓴 연극입니다. 2006년 프랑스에서 초연되어, 2009년 로렌스 올리비에 최우수 코미디연극상, 2009년 토니 최우수 연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로만 폴란스키Roman Polanski 감독, 조디 포스터, 케이트 윈슬렛 주연의 영화 <Carnage>로 리메이크되었으며, 야스미나 레자는 여기에도 작가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에는 2012년 <대학살의 신>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하였습니다.

연출이 말합니다. 자전 14 노현선.

2013년 봄, <도덕적 도둑> 공연을 보면서 '이 곳에서는 연극을 재밌게 할 수 있겠구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저는 리버액트의 신입생이 되었고 저번 가을 공연에서 배우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에서 무대의 중심에 서다보니 문득 공연을 이끄는 연출이라는 자리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욕심만 앞선 채로 연출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두 달간, 연출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생각보다 많았고 혹여 하나라도 놓치면 동아리 전체에 누를 끼칠까봐 부담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 때마다 격려해주시고 도와주신 선배님들이 있었고 스스로 공연을 직접 만들어간다는 뿌듯함으로 기쁘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달간 동고동락하며 노력에 고인을 대한 공연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무대의 막이 내려가고, 조명이 꺼지고, 관객들이 떠나도 두 달간의 열정이 모든 공연진의 추억으로 깊게 남길 바랄게요.

정재우 연기감독
노현선 연출
조현익 기획
손소원 기획

대학살의 신: 2015 봄 리버액트 정기공연 (팜플렛)

210× 297 mm (양면), 종이 위에 읊셋 인쇄
Adobe Indesign
2015년 2월

대학살의 신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연극부 LIBERACT
2015 봄 정기공연

2015. 3. 10. ~ 11. 16:00 / 19:00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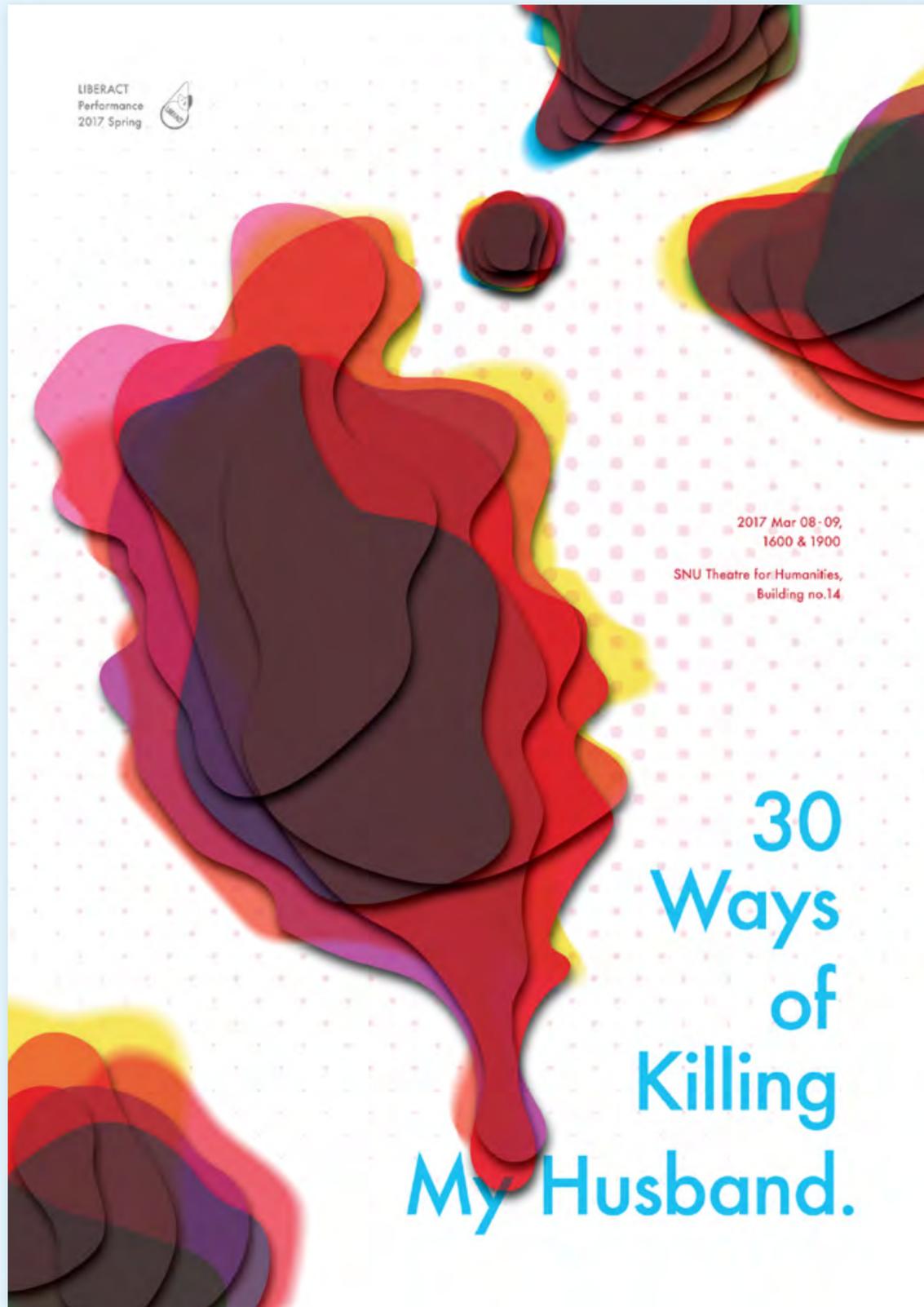


리버액트 Liberaact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연극부로, 2012년 9월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3월/9월의 정기공연과 2월의 자유전공학부 세트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수는 자유전공학부 양일모 교수입니다.

장희나 조명	정진엽 음향	서민주 무대/소품	서정연 무대/소품
이우일 의상	장아영 미술감독		

동장이 말합니다. 자전 14 이진형.

이번 겨울 방학도 어느덧 지나가고, 3월 정기공연이 이제는 2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공연 하나 하나가 올라갈 때마다 리버액트의 역사가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뿌듯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연극은 공연된 후에는 우리의 기억에서만 존재합니다. 이 공연이 끝난 후, 공연진과 관객들 모두 이번 연극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간직한 채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살의 신> 공연진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관객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고 공연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죽이는 서른가지 방법:
2017 봄 리버액트 정기공연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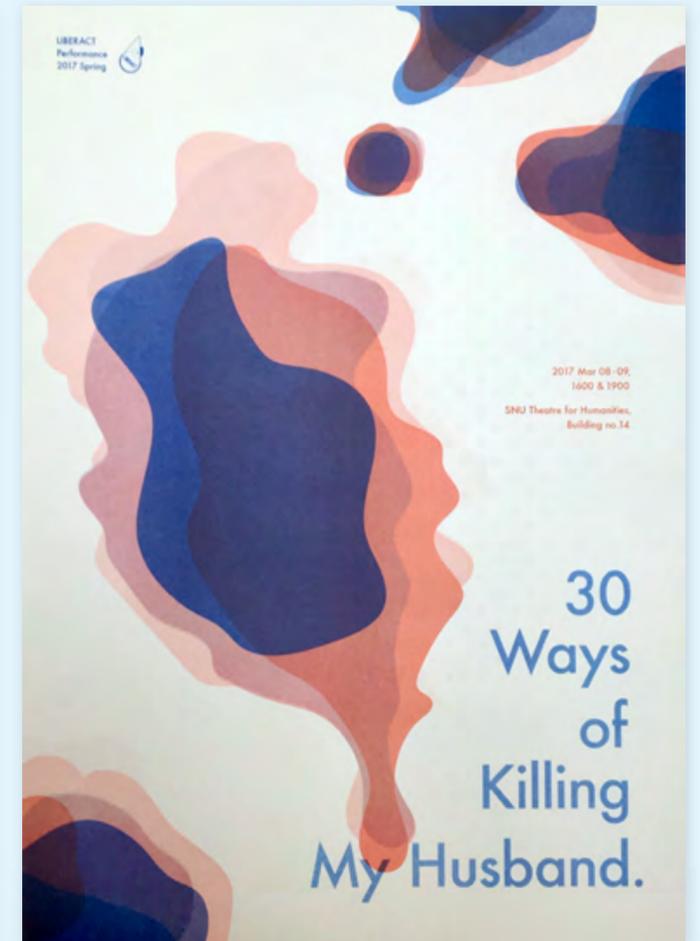
594 × 840 mm, 종이 위에 옅색 인쇄
Adobe Photoshop, Adobe Illustrator
2017년 3월

**30 Ways of Killing My Husband
(2도 리소그래피 리메이크)**

297 × 420 mm, 종이 위에 리소그래피 인쇄
Adobe Photoshop, Adobe Illustrator
2017년 11월

**30 Ways of Killing My Husband
(영문 포스터 리메이크)**

594 × 840 mm, 종이 위에 옅색 인쇄
Adobe Photoshop, Adobe Illustrator
2017년 8월



2017년 3월, 리버액트는 “남편을 죽이는 서른가지 방법” 연극을 올립니다.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정신학대를 행사한 남편이 살해당하자, 아내는 스스로 남편을 살해했다는 환상에 빠져 범행을 자백합니다. 극에서는 아내가 학대당한 상황을 조명하고, 실제 범인과 범행수법을 밝히려는 형사의 활동을 보여줍니다.

이 극은 추리 스릴러라는 장르 속성, 그리고 공연 당시 한국사회에서 한창 달아오르던 여성혐오 문제를 조명하는 주제 속성을 갖췄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속성을 내재한 강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다양한 개인의 (성)정체성을 내포한 무지개빛 색상을 검붉은 톤으로 번지게 하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섞여있던 색상들이 물리적 충격을 받아 터진 핏자국 속에서 제각기 번져나가는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2) 저널리즘/프로파간다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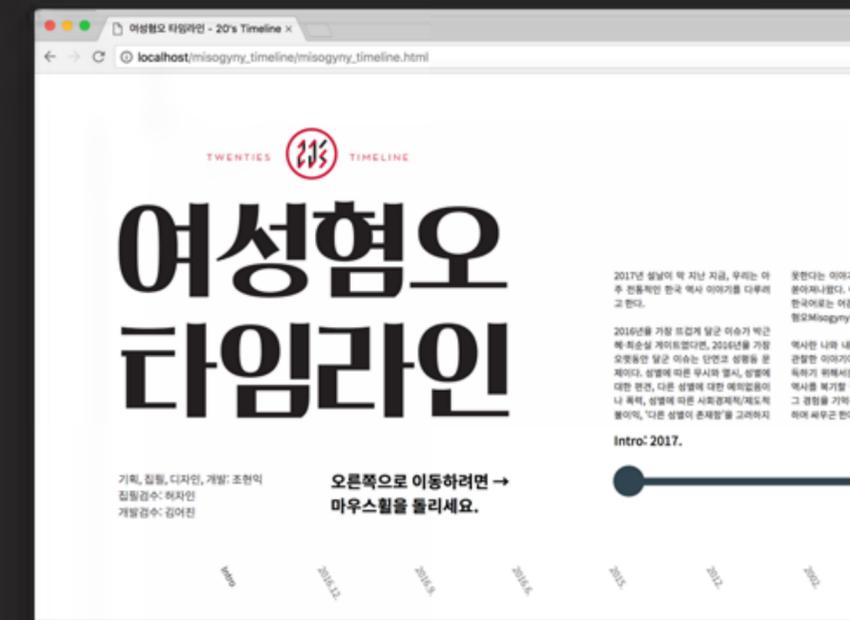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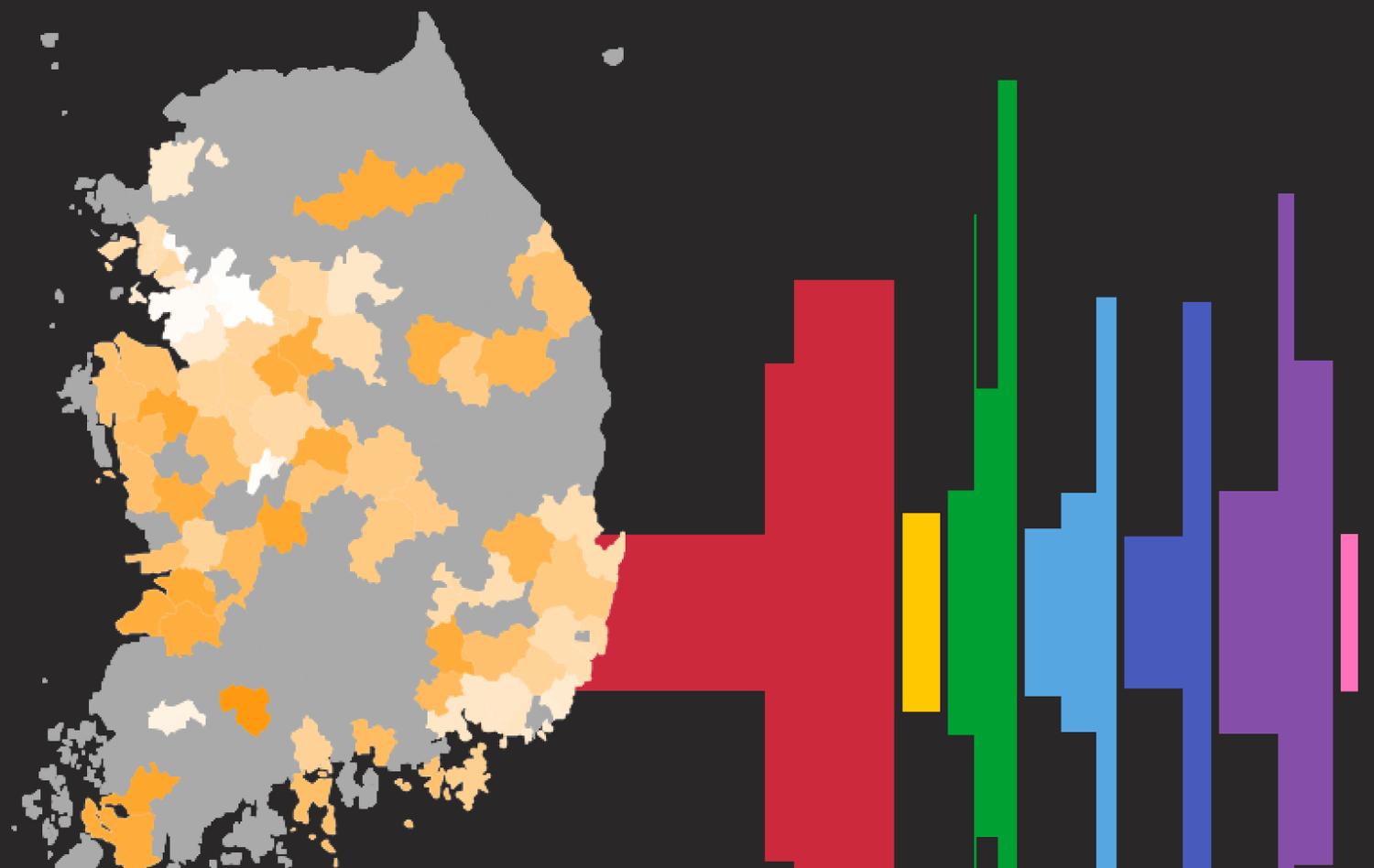
이 장에는 저널리즘, 또는 특정한 주장을 전파하기 위한 프로파간다에 해당하는 디자인 작업을 모았습니다. 주제를 '독자'에게 효과적이고 매력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 시각적으로 구현한 작업입니다. 웹 작업부터 전시 설치까지, 매체 제한에 속박되지 않고 독자의 집중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런 안목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나 프로모션 진행을 위한 디자인 작업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 29
우리 지역 고용위기 시그널

p. 35
평등하게 1/n

p. 39
유니세프 후원검증 작업물

p. 44
여성혐오 타임라인



우리 지역 고용위기 시그널

<https://lab2050.org/workmap> (인터랙티브 지도 페이지)

<https://comjoy91.github.io/workmap-journalism/> (기사형 스토리텔링 페이지)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 저널리즘 웹페이지
2018. 09. ~ 12.

클라이언트

LAB2050 (민간 독립 정책연구소)

<https://www.lab2050.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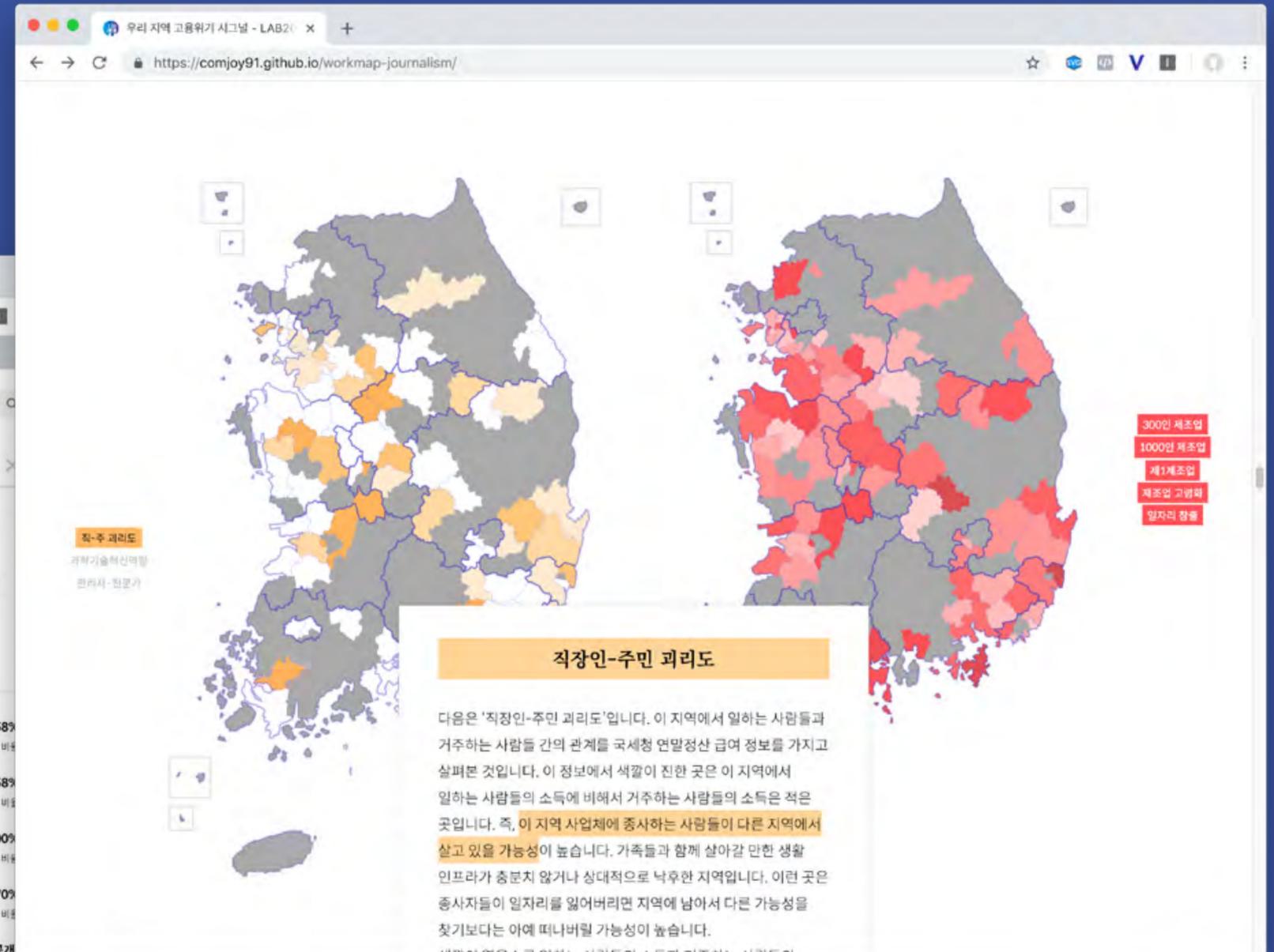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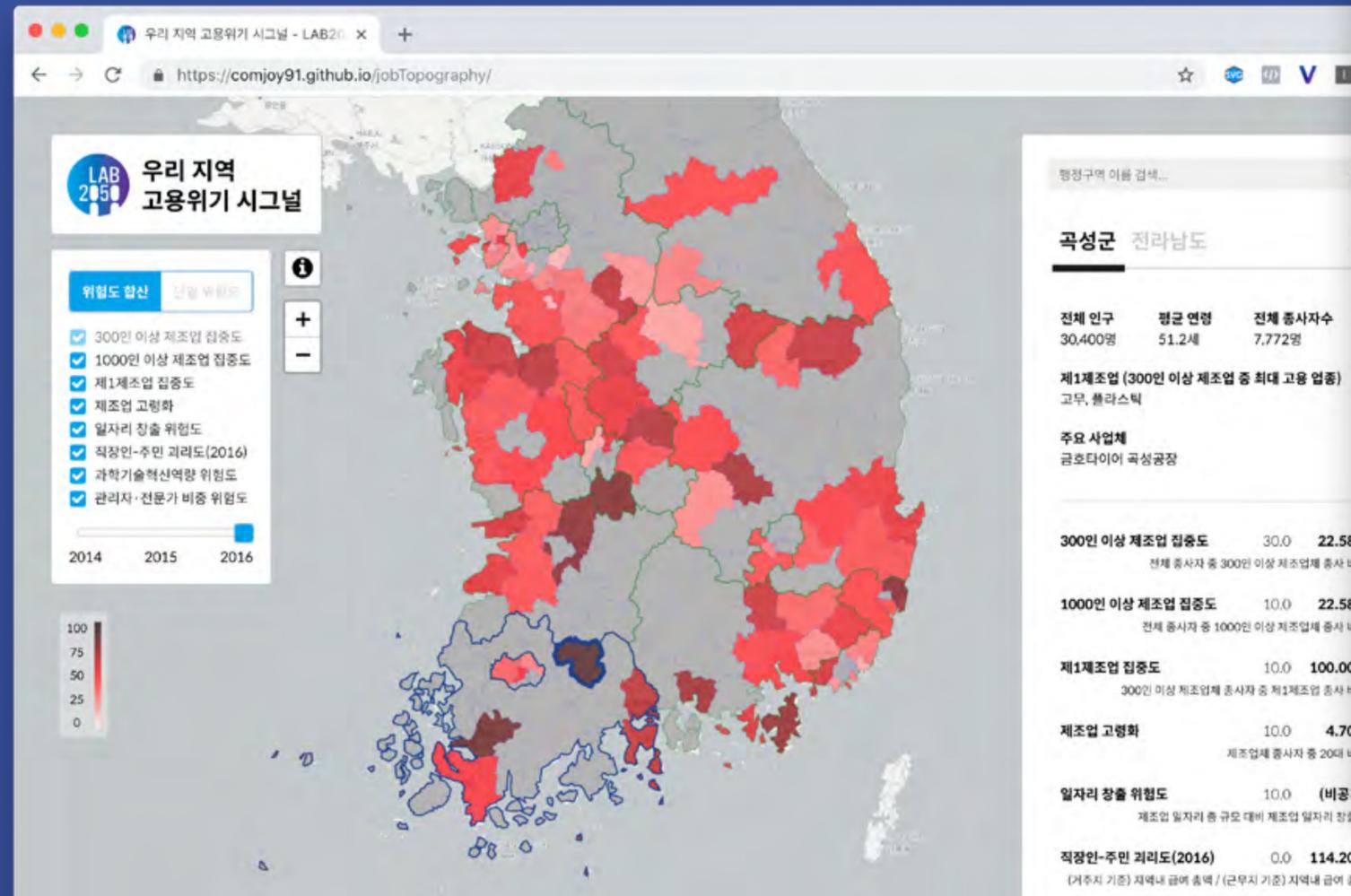
제작 참여

황세원 (연구 총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원고 작성)

고동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이상 LAB2050 연구원)

서재교 (연구 자문,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조현익 (인포그래픽 및 UI 기획, 디자인 시각화, 개발)



“우리 지역 고용위기 시그널”은 특정 지역의 대형 제조업 공장이 폐쇄될 시, 해당 지역에 미칠 고용위기의 정도를 시각화한 작업입니다.

이 연구는 2014~16년에 조사된 한국의 224개 자치구/시/군의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역의 특정 기업/산업에 대한 의존도, 제조업 노동자의 연령 및 전문성, 제조업 노동자의 지역내 거주비율 등을 근거로, 잠재된 고용위기의 심각성을 지역마다 색상으로 표현하고 데이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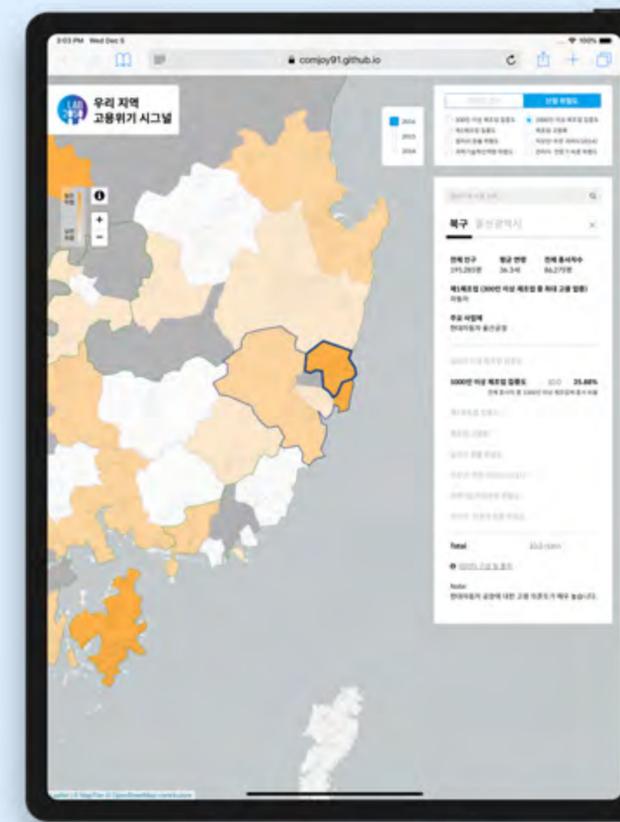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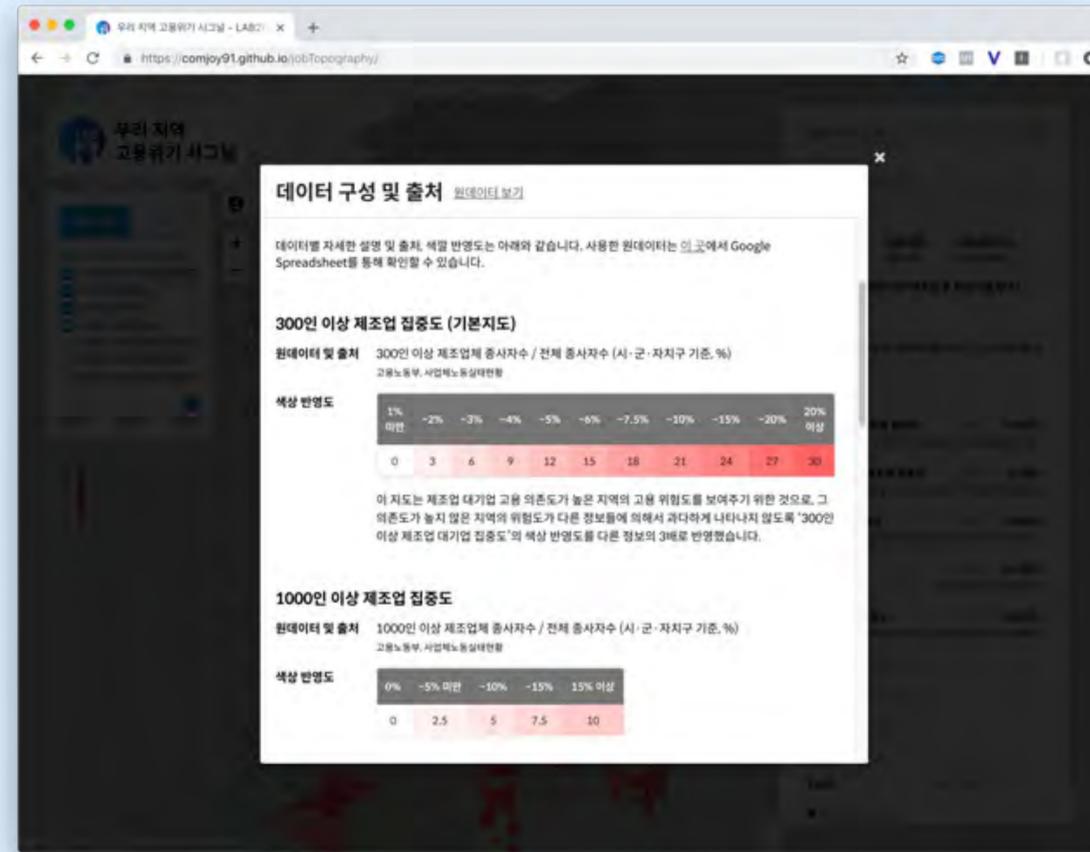
- 디자인의 목표

이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특정 대기업/산업이 발달해 고용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던 지표의 의미를 뒤집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특정 대기업/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위기상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주제의식을 사용자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작업은 단순한 데이터 기반 인포그래픽을 넘어서, 연구주제를 스토리로 전달하는 사용자 경험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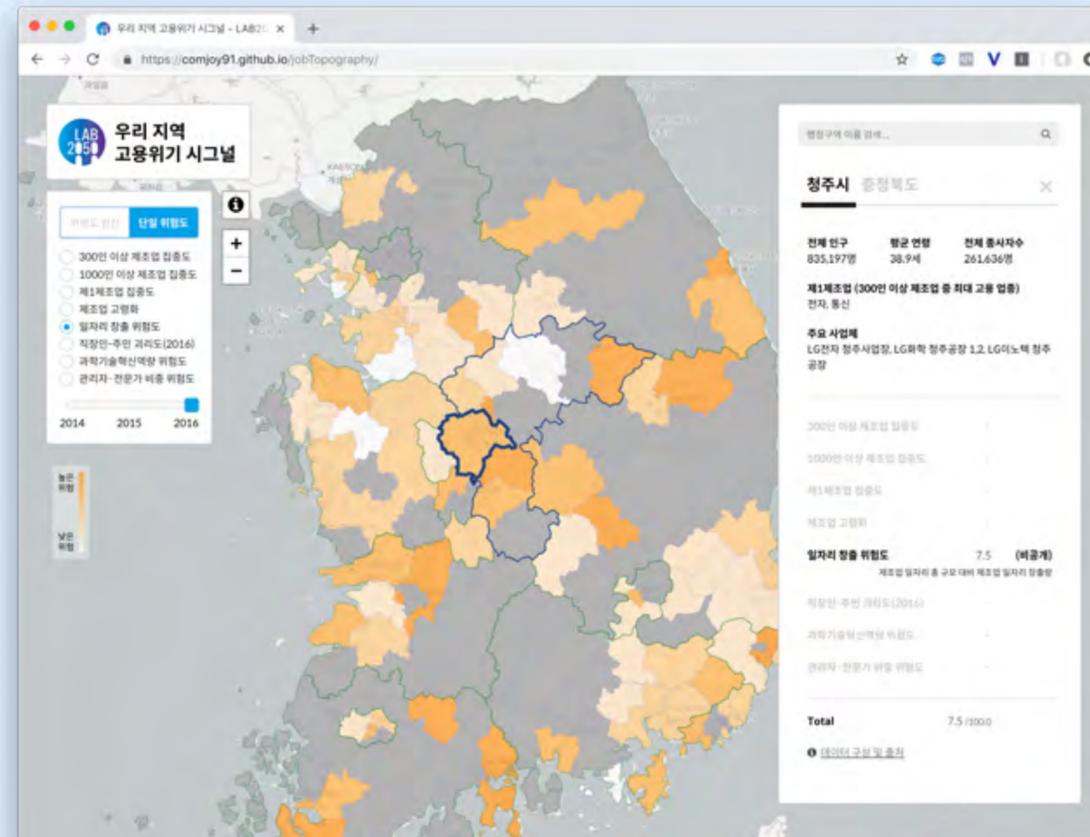
우리 지역 고용위기 시그널 (인터랙티브 지도 웹페이지)

반응형 웹페이지
HTML5, CSS, Javascript, JQuery 사용. Leaflet.js 라이브러리 사용.
2018년 11월

<https://lab2050.org/workmap>



iPad Pro (12.9-inch) (3rd generation) - 12.1



iPhone 6s - 12.1



iPhone 6s - 12.1

- 지도 페이지에서의 사용자 경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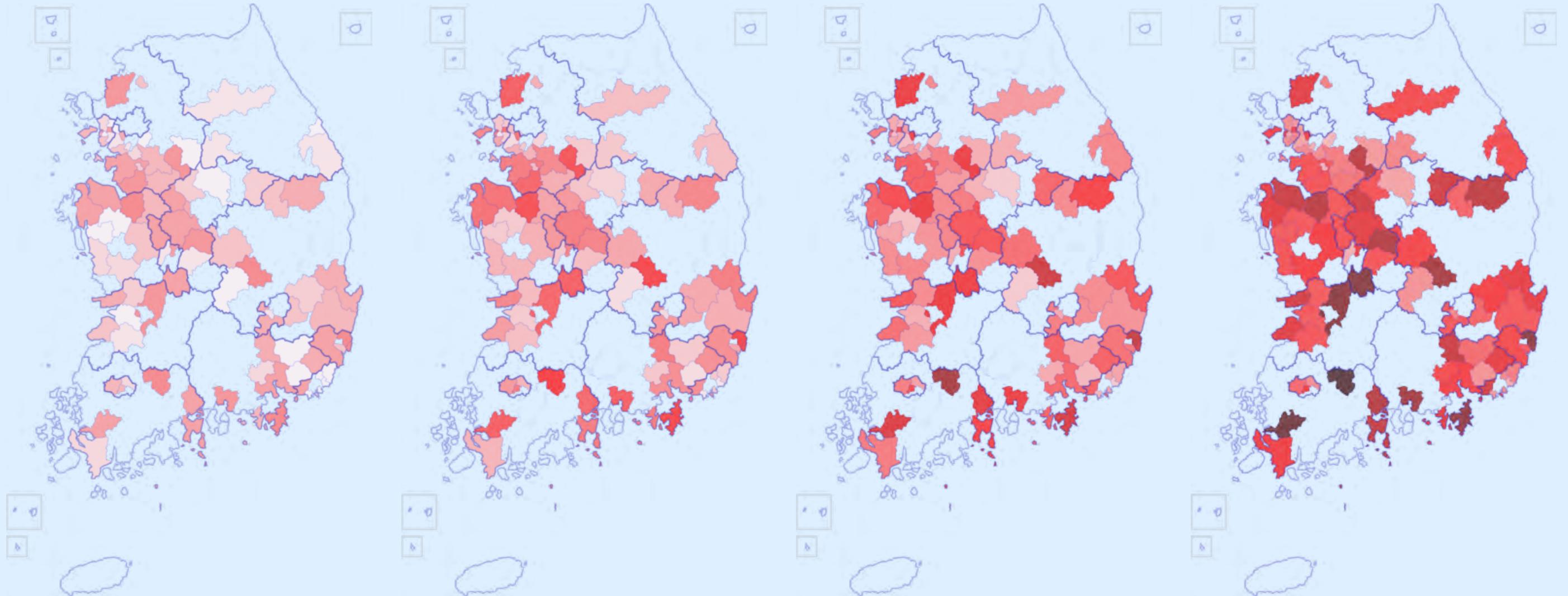
이를 위해, 이 웹페이지에서는 연구를 통해 추출한 8가지 지표를 색상으로 표현한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높은 위험도는 진한 색상으로 표현되었고, 사용자는 8가지 지도 중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겹쳐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각 레이어의 의미를 직접 파악하고, 이 모든 요소가 고용위기의 징후라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여러 레이어를 직접 겹치면서, 특정 지역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를 확인하고, 다른 지역과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위기의식을 각성시켜, 연구내용과 주제의식이 대중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도록 합니다.

우리 지역 고용위기 시그널 (위험도가 점층적으로 겹쳐진 지도)

754 × 1222 px (총 8종), 디지털 전자화면매체
HTML5, CSS, Javascript, JQuery 사용. Leaflet.js 라이브러리 사용.
2018년 11월

- (1): 300인 이상 제조업 집중도
- (2): (1)+1000인 이상 제조업 집중도, 제1제조업 집중도
- (3): (2)+제조업 고령화, 일자리 창출도
- (4): (3)+직장인-주민 괴리도, 과학기술혁신역량 위험도, 관리자/전문가 비중 위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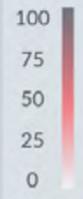


우리 지역 고용위기 시그널

위험도 합산 단일 위험도

- 300인 이상 제조업 집중도
- 1000인 이상 제조업 집중도
- 제1제조업 집중도
- 제조업 고령화
- 일자리 창출 위험도
- 직장인-주민 괴리도(2016)
- 과학기술혁신역량 위험도
- 관리자·전문가 비중 위험도

2014 2015 2016



- 맵 네비게이션

지도 위에 '겹쳐서' 표시할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상단 탭을 통해, 레이어를 겹쳐서 볼 것인지(위험도 합산) 한 가지 데이터의 지도만 볼 것인지(단일 위험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의 슬라이드 바를 통해, 2014~16년 중에서 하나의 데이터를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데이터

선택된 레이어와 연관된 지역별 데이터를 우측에 모아서 보여줍니다. 상단에는 인구 등의 기본정보를, 하단에는 데이터별 색상반영도, 그리고 색상반영도의 근거가 되는 원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선택되지 않은 레이어에 해당하는 정보는 혼선을 막기 위해 보여주지 않습니다.

<https://lab2050.org/workmap> 에서 직접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 이름 검색...

완주군 전라북도

전체 인구	평균 연령	전체 종사자수
95,480명	43.6세	39,977명

제1제조업 (300인 이상 제조업 중 최대 고용 업종)
자동차

주요 사업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300인 이상 제조업 집중도	27.0	18.35%
전체 종사자 중 300인 이상 제조업체 종사 비율		

1000인 이상 제조업 집중도 -

제1제조업 집중도 -

제조업 고령화	2.5	16.50%
제조업체 종사자 중 20대 비율		

일자리 창출 위험도	10.0	(비공개)
제조업 일자리 총 규모 대비 제조업 일자리 창출량		

직장인-주민 괴리도(2016)	10.0	51.00%
(거주지 기준) 지역내 급여 총액 / (근무지 기준) 지역내 급여 총액		

과학기술혁신역량 위험도 -

관리자·전문가 비중 위험도	5.0	10.30%
전체 취업자 중 관리자·전문가 비율		

Total 54.5 / 100.0

데이터 구성 및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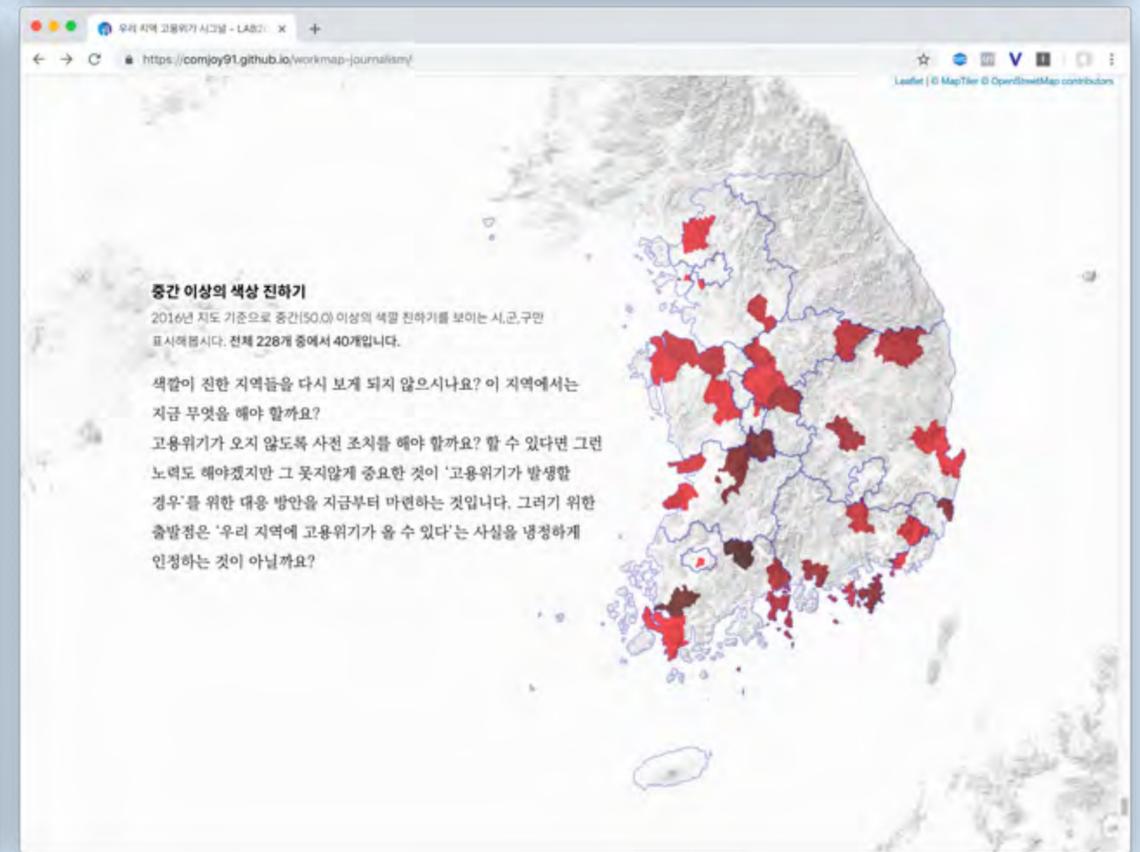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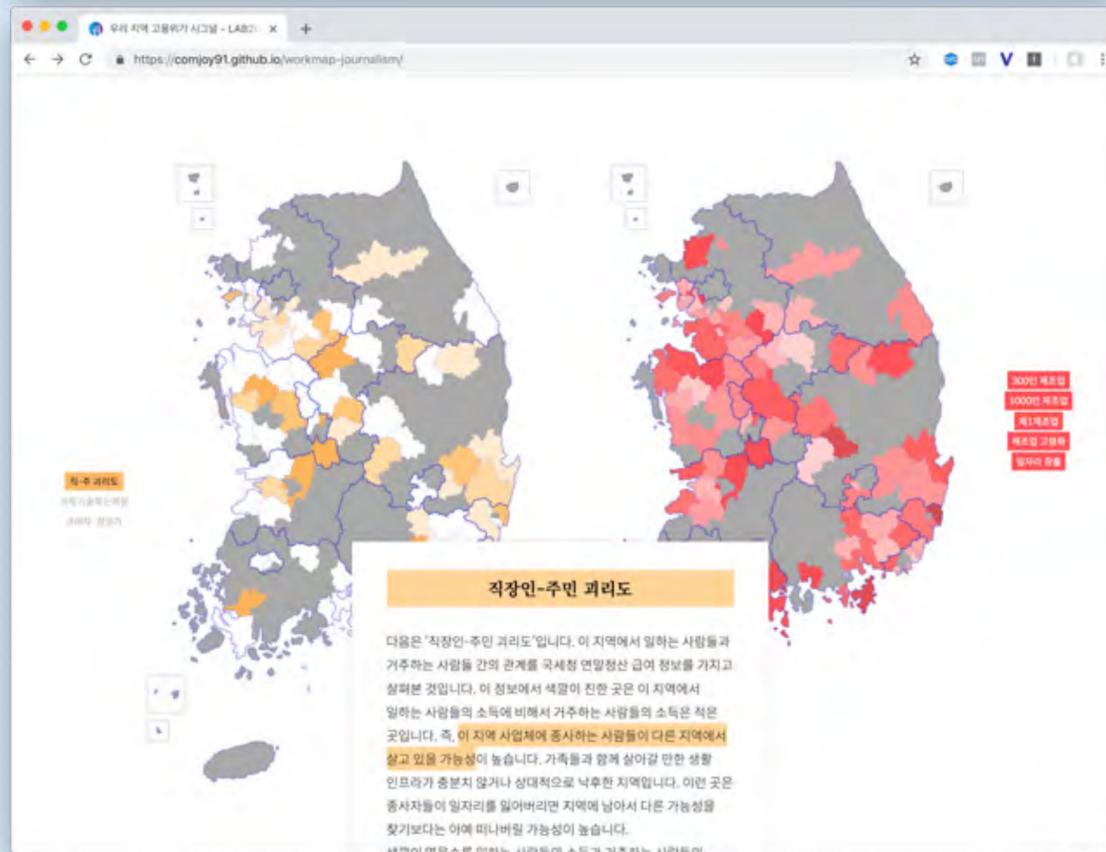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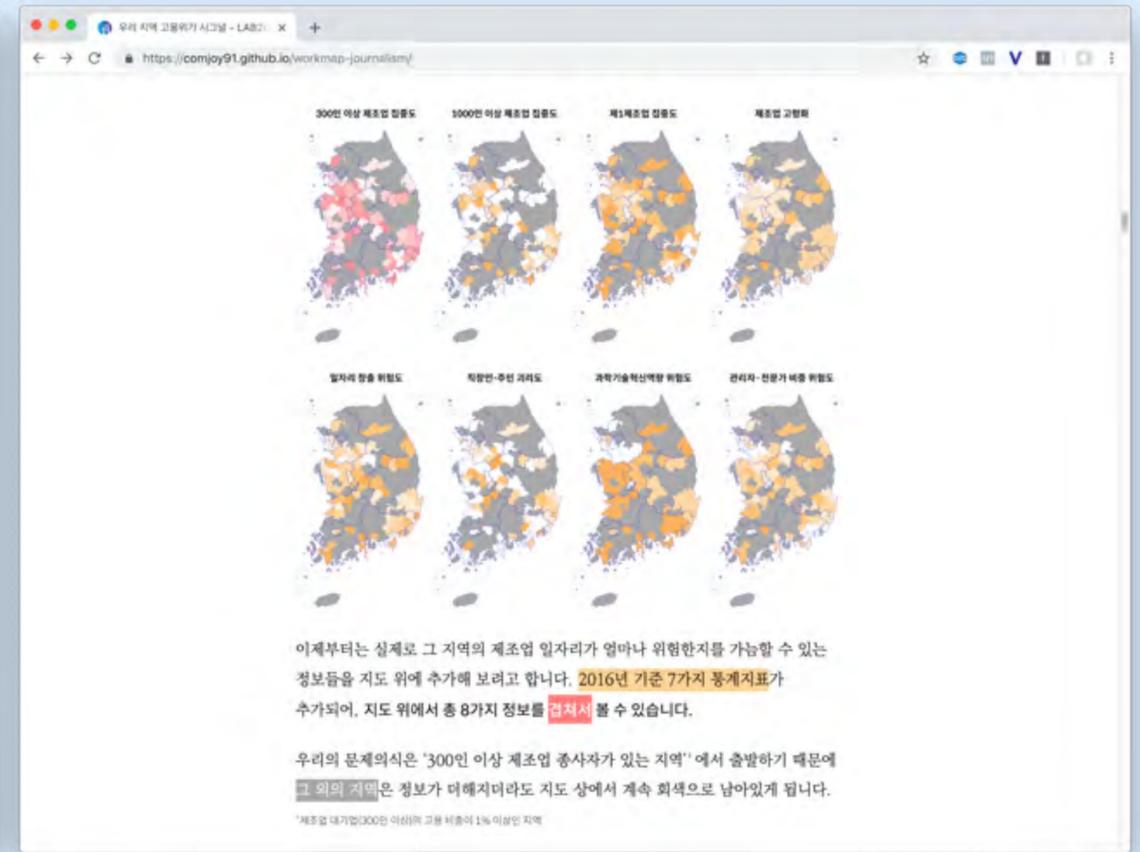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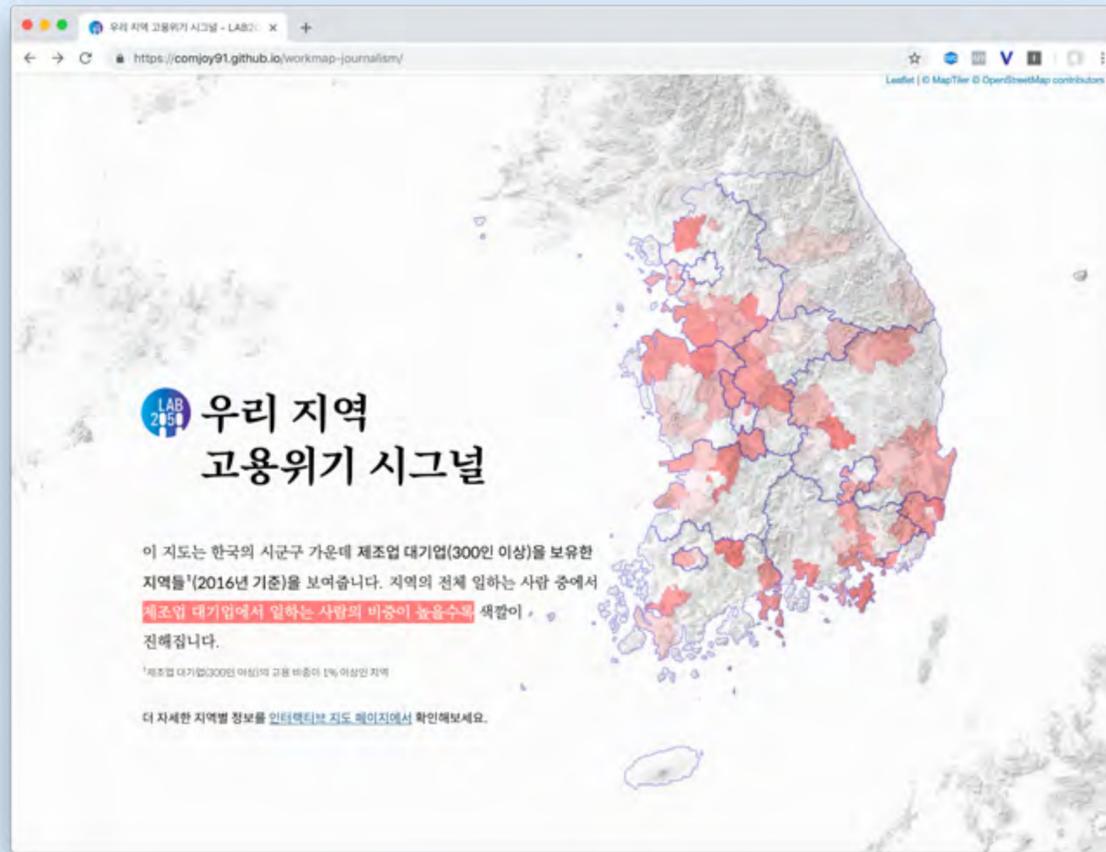
Note:
지역 제조업 종사자의 상당수가 인근의 전주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사형 스토리텔링 페이지에서의 사용자 경험 설정

LAB2050에서 먼저 제안한 것은 지도 페이지의 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도만으로는 연구의 주제의식, 데이터와 위기 지역에 대한 해설이 매우 빈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LAB2050과의 합의를 통해, 연구 내용을 직접 설명하는 “기사형” 스토리텔링 페이지를 별도로 제작했습니다.

다량의 글/그래프/지도가 사용되고, 그 내용이 복잡한 만큼, 기사형 페이지에서는 독자가 끝까지 집중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화면기기의 폭에 따라 글-그래프-지도의 가독성과 내용 조화를 동시에 만족하는 반응형 레이아웃과 타이포그래피 사용.
- (2) 글과 지도에서, 같은 주제를 나타내는 대상을 계속 연결하며 읽을 수 있는 트리거 설치.
- (3) 긴 글을 읽어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주제를 잘 전달하도록, 눈에 잘 들어오는 지도 애니메이션 설치.



우리 지역 고용위기 시그널 (기사형 스토리텔링 웹페이지)

반응형 웹페이지
HTML5, CSS, Javascript, JQuery 사용. D3.js, Leaflet.js 라이브러리 사용.
2018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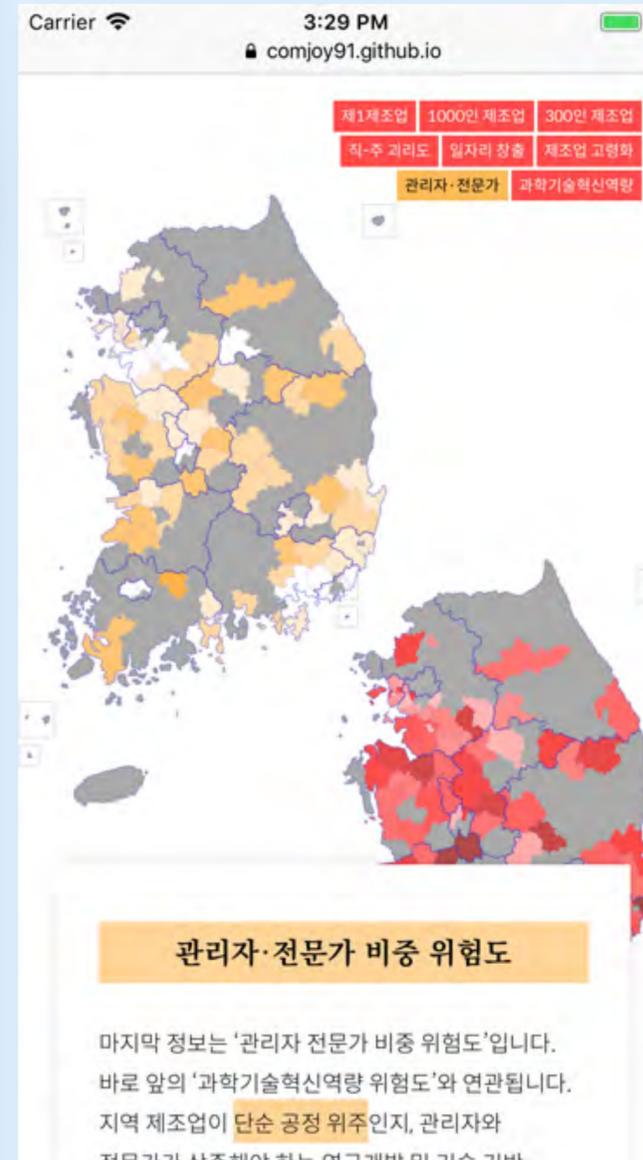
<https://comjoy91.github.io/workmap-journalism/>

- 웹 레이아웃

(1)과 (2)를 해결하기 위해, 지도를 뒷배경으로 하고 텍스트를 상대적으로 앞으로 내보여주는 레이아웃을 채택했습니다. 지도와 텍스트의 영역을 임의로 구분하지 않아서 독자가 두 내용을 유기적으로 확인하며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크롤에 따라 글 내용에 맞춰 지도 내용이 변화하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했습니다.

- 주제의식과 맞닿은 애니메이션

특히, 2개의 지도를 나란히 놓고 '지역별로 날아가서 겹쳐지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연구의 핵심인 데이터 8종이 점점 겹쳐져서 지역의 위기상황을 점점 드러내는 애니메이션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에게는 데이터 8종을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고, 독자는 점층되는 위험도를 관찰하며 연구가 전달하려는 위기의식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지역 고용위기 시그널 (기사형 스토리텔링 웹페이지)

반응형 웹페이지
HTML5, CSS, Javascript, JQuery 사용. D3.js, Leaflet.js 라이브러리 사용.
2018년 12월

<https://comjoy91.github.io/workmap-journalism/>

평등하게 1/n

“어떤 대상을 ‘n’에 포함할 것인가?”

<https://comjoy91.github.io/fairly-divided-byN/>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 전시 설치
201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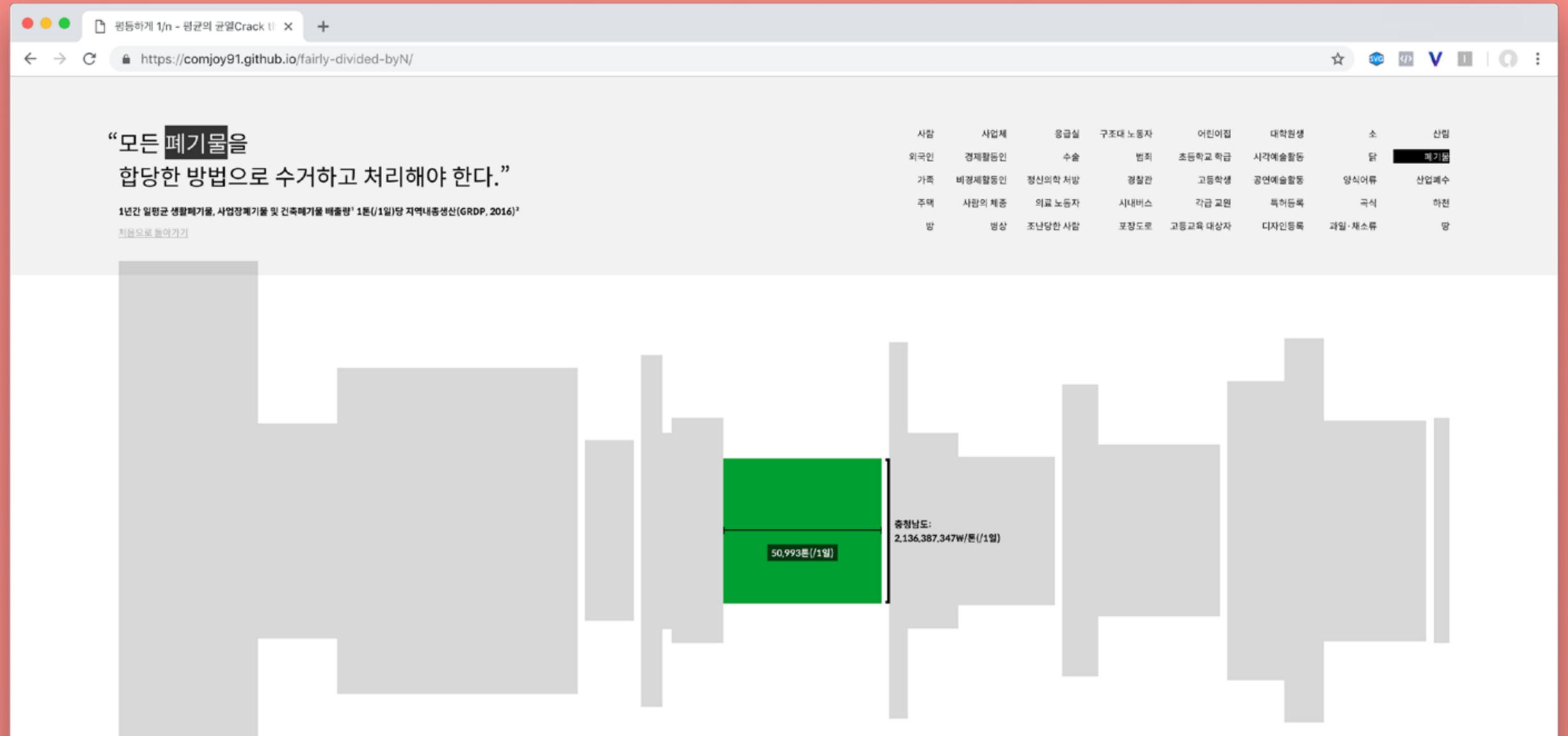
출품 전시

2018 서울시립미술관 시민큐레이터 선정 전시
“평균의 균열” 출품작 (2018. 10. 18 ~ 27)

전시 공식 [웹사이트](#) 및 [인스타그램 계정](#)
서울시립미술관 [공고문](#)

제작 참여

이야호 (전시 기획 및 총괄, 설치물 제작 지원)
조현익 (전시작 기획, 리서치, 웹페이지 및 설치물 제작)



“보통 내신성적은 모든 과목 점수를 더해서 평균을 내지만, 체육을 너무 못했던 나는 몸 쓰는 과목을 빼고 다뤄보라며 ‘체육을 뺀 평균성적’을 굳이 계산해서 친구들과 비교하는 짜질한 짓을 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진학하기를 원하는 상급학교의 전형에 맞춰 ‘국영수’ 평균, ‘국영수사과’ 평균 등을 따로 계산하기도 했다. 어쩌면 우리는 평균값을 계산하고 비교하는 것보다도, 어떤 대상을 계산에 포함하느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평균을 측정할 때, n개의 측정대상은 모두 가중치 없이 더해지고, 모두 더해진 뒤에야 n으로 동등하게 나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상을 평등하게, 중요하게 대우하며 ‘n’에 포함할 것인가? 사람들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경제력의 기준으로 삼으며, 여기에는 사람 한 명에게 충분한 경제력이 주어져야 한다는, 즉 사람 한 명 한 명을 중요하고 평등하게 여기는 정신이 들어있다. 그렇다면 주택 1채당, 경찰관 1명당, 사육 소 1마리당, 산림 1,000m³(세계곱미터)당 GRDP 같은 개념을 들고 오면 어떨까?”

- 디자인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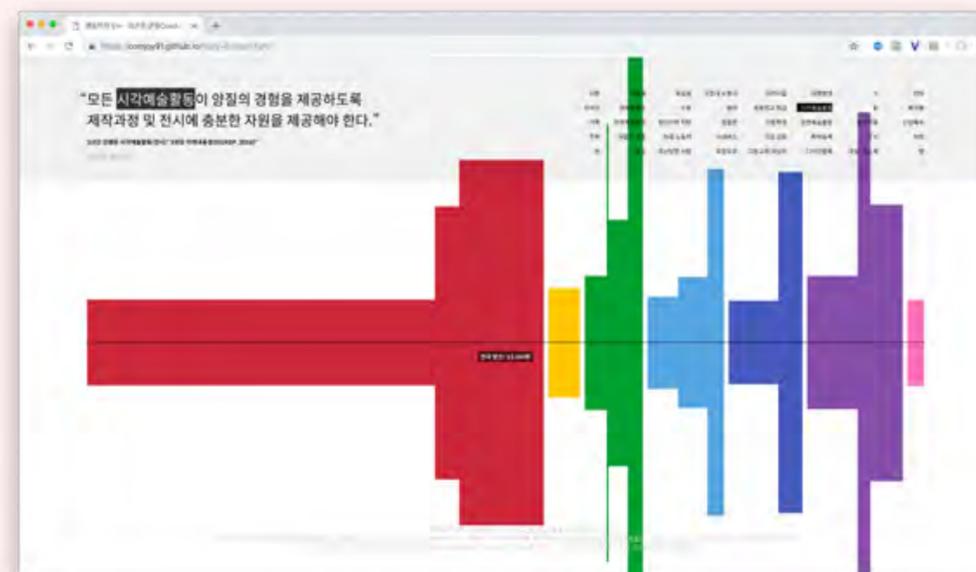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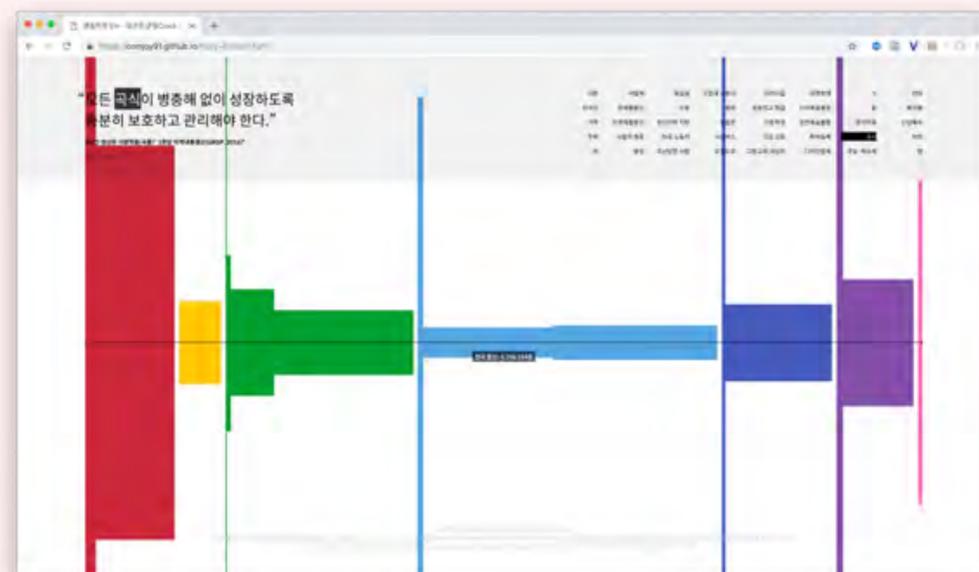
“평균의 균열”이라는 전시 주제에 맞춰, 산술평균이라는 통계기법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작업을 구상했습니다. 17개 광역시/도의 GRDP를 총량으로 하고, 이를 각 지역별 인구, 주택, 사업체, 수술환자, 경찰관, 초등학교 학급, 특허등록, 사육 소(牛), 산림 부피 등 다양한 대상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평균값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1)평균으로 나누는 대상과 그 의미를 보여주고, (2)총량이 변하지 않음에도 나누는 대상에 따라 급격하게 바뀌는 평균값을 시각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 고용위기 시그널 (지도 웹페이지)

4096 × 2304 px, 반응형 웹페이지
HTML5, CSS, Javascript, JQuery 사용. Leaflet.js 라이브러리 사용.
2018년 11월

<https://comjoy91.github.io/fairly-divided-byN/>



“모든 어린이집은 충분한 보육환경을 준비해야 한다.”

어린이집 1개소당 지역내총생산(GRDP, 2016)²

[처음으로 돌아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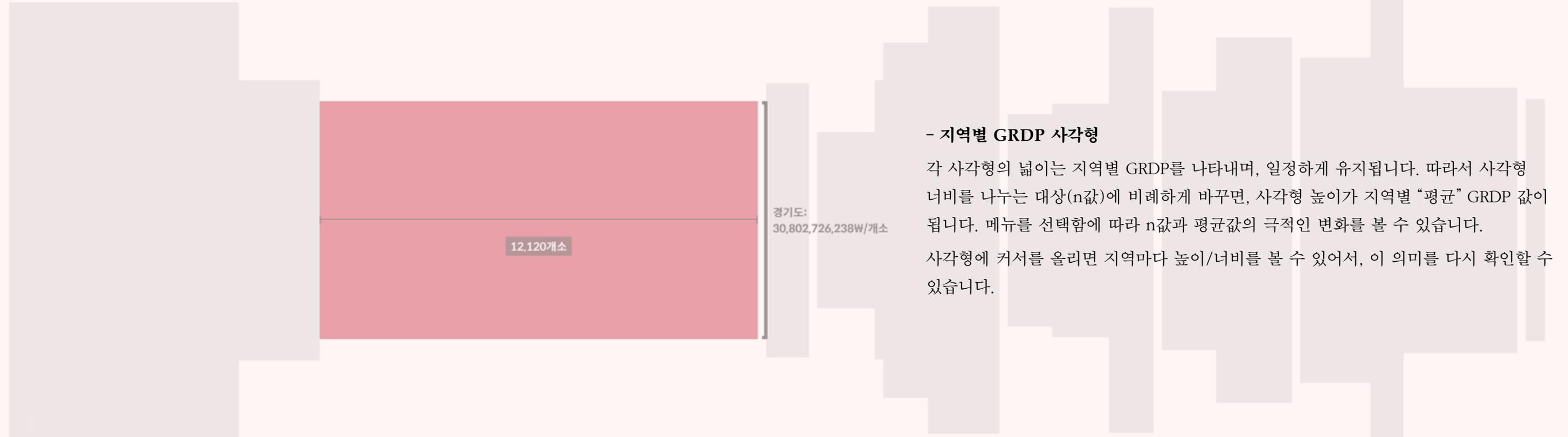
사람	사업체	응급실	구조대 노동자	어린이집	대학원생	소	산림
외국인	경제활동인	수술	범죄	초등학교 학급	시각예술활동	닭	폐기물
가족	비경제활동인	정신의학 처방	경찰관	고등학생	공연예술활동	양식어류	산업폐수
주택	사람의 체중	의료 노동자	시내버스	각급 교원	특허등록	곡식	하천
방	병상	조난당한 사람	포장도로	고등교육 대상자	디자인등록	과일·채소류	땅

- 메뉴에 대한 설명

나누는 대상에 따라, 그 대상이 ‘경제력을 평등하게 분배받는다’는 의미를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해서, 평균의 의미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 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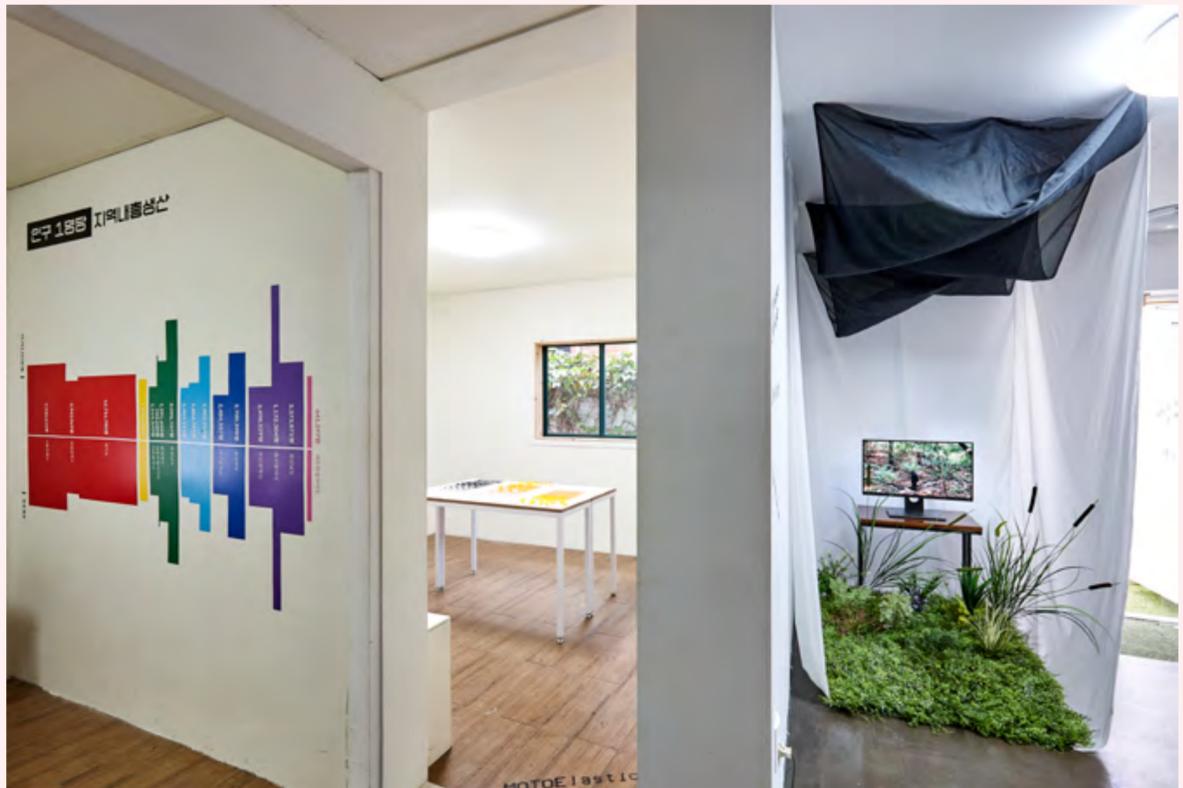
각 메뉴는 GRDP를 나누는 대상을 나타내며, 이를 클릭하면 각 지역별 사각형의 높이/너비가 변화합니다.





평등하게 1/n (“평균의 균열” 전시 설치물)

2250 × 2300 mm (4종), 시트지 접착 + 고정형 웹페이지
 Adobe Illustrator 사용
 이아호 전시 기획, 조현익 작업물 기획 및 제작
 2018년 10월, 서울 망원동 “예술공간+의식주”
 (사진촬영: 서울시립미술관)



유니세프 후원검증 작업물

inspire/d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클라이언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http://unicef.or.kr/>

<https://www.facebook.com/WeActionUNICEF>

에이전시 / 제작 참여

inspire/d

<http://inspired.creviss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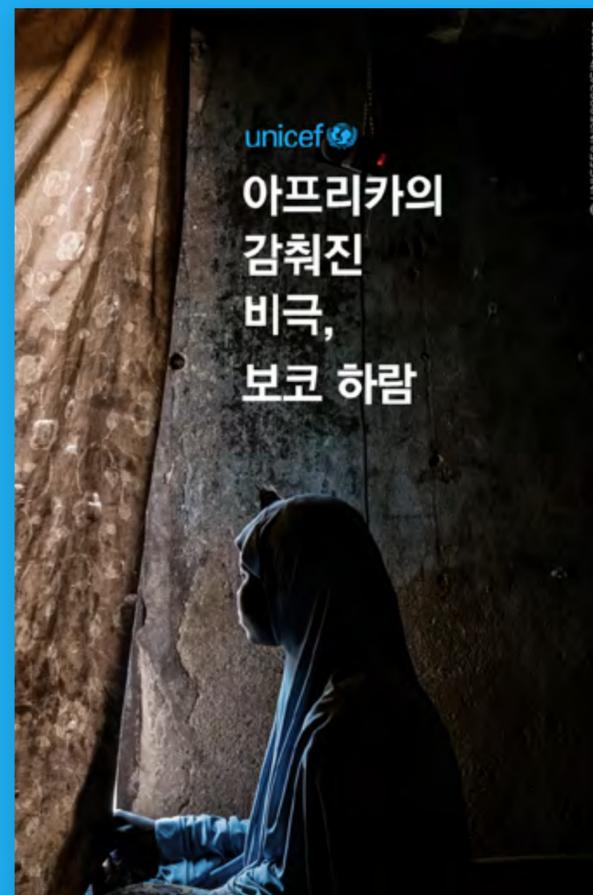
박찬진, 김혜주 (스토리 및 콘티 기획)

조현익 (콘티 내용 시각화)

김보영, 권민희 (시각화 검수)

(브랜드 경험) 그래픽 디자인, (웹 환경) 편집디자인

2016. 10. ~ 2017. 06. (inspire/d 근무 전체기간)



UNICEF WeAction: 보코하람

720 × 1080 px (10장), 디지털 전자화면매체(Face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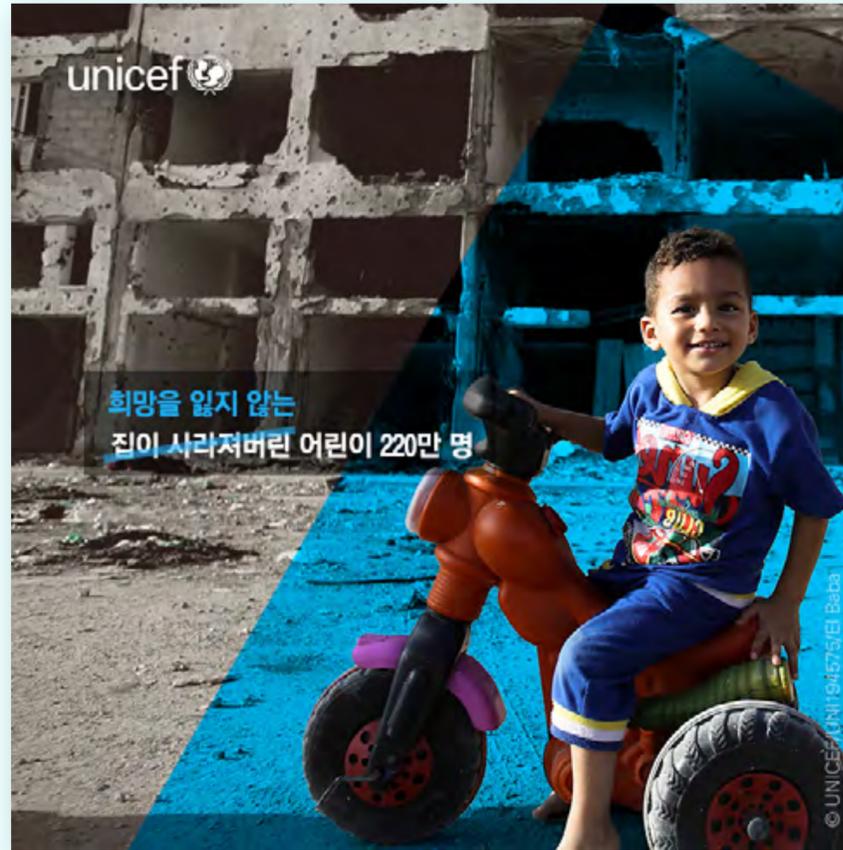
박찬진 콘티기획, 조현익 시각화

Adobe Photoshop 사용, UNICEF WeShare 사진아카이브 이용.

2017년 4월

인스파이어디inspire/d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멋진 캠페인과 한번 보면 잊지 못할 브랜드,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그로스 마케팅으로 기업의 매출과 사람들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브랜딩/마케팅 회사입니다.

inspire/d와 유니세프UNICEF 한국위원회는 유니세프가 시행하는 국제적인 아동보호 및 구호 활동을 후원자에게 보고하는 후원검증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inspire/d가 제안한 아이덴티티 전략에 따라, 페이스북 페이지 게시물, 이메일 발송, 캠페인 웹페이지를 통해 유니세프의 활동을 알리고 후원을 호소하는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디자이너 직무를 맡았던 조현익은 기획자의 콘티에 따라 시각화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UNICEF WeAction: 희망

720 × 720 px (4장), 디지털 전자화면매체(Facebook)
 김혜주 콘티기획, 조현익 디자인
 Adobe Photoshop 사용, UNICEF WeShare 사진아카이브 이용.
 2017년 2월

유니세프는 이미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독자적인 아이덴티티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색상, 타이포그래피 등에서 새로운 디자인 요소를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작업은, 기획에서 강조하려는 콘텐츠 서사를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디자인 요소를 활용해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내용에 맞는 적절한 사진 확보, 특징적인 문구 강조, 사진에서 주목할 부분을 디자인 요소를 통해 강조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UNICEF WeAction: 신생아 생명 지키기 3가지 방법

720 × 720 px (9장), 디지털 전자화면매체(Facebook)
 박찬진 콘티기획, 조현익 시각화
 Adobe Photoshop 사용, UNICEF WeShare 사진아카이브 이용.
 2017년 4월

오늘은 김연아 친선대사처럼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곳을 클릭해 주십시오.

유니세프 필드 다이어리는 잘 읽으셨나요?

필드에서 어린이 구호 활동을 하는 직원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이제, 유니세프 국제 친선대사 김연아가 들려주는
유니세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어린이들에게 꿈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 유니세프 친선대사 김연아



© 올댓스포츠/allthatsports

어린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꿈을 이룰 수 있었던 한 소녀는
더 많은 어린이들의 꿈을 위해
유니세프 최연소 국제친선대사가
되었습니다.



© 올댓스포츠/allthatsports

유니세프 친선대사 김연아의 꿈

[자세히 보기](#)

UNICEF 회원 안내 이메일:
오늘은 김연아 친선대사처럼

700 × 4155 px, 디지털 전자화면매체(email)
박찬진 콘티기획, 조현익 시각화
Adobe Photoshop 사용, UNICEF WeShare 사진아카이브 이용.
2017년 5월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꾸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LikeYUNA



그림으로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5년 동안 이어진 내전으로
학교에 갈 수 없었지만
유니세프 덕분에 이제 다시 학교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 허산, 10살



엄마에게 예쁜 옷을 만들어 줄래요

돈을 벌기 위해 엄마를 도와
바느질 일을 해요.
학교에 갈 수 없지만 바느질 실력을 길러서
멋진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 사일라, 8살

더 많은 어린이의 꿈

[자세히 보기](#)

더 많은 어린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5살 아흐마디는 비닐봉지로
유니폼을 만들어 축구를 연습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리오넬 메시 유니세프 국제친선대사는
유니세프를 통해 유니폼을 선물하고
아흐마디에게 축구선수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다섯 살 아흐마디의 꿈

[자세히 보기](#)



유니세프와 함께
더 많은 어린이의 꿈을 후원해주세요.





unicef
최고의 투자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마지막 코마부터 세면 바진, 일 거이스까지
사람들은 누구한테서 투자를 합니다.
당연하게도 투자자들은 모두
효율적이고 높은 성과를 내는 투자를 하고 싶어합니다.
매기 알산에게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는 투자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실적이 떨어진 적 없는 노련한 투자이자
당신의 기쁨을 위해 하는 유일한 투자입니다.

for every child

UNICEF 캠페인 페이지: 최고의 투자

1320 x 8802 px, 고정형 웹페이지
박찬진 콘티기획, 조현의 시각화 (아이콘 시각화: 김병준)
Adobe Photoshop, Instapage(웹페이지 제작 툴) 사용,
UNICEF WeShare 사진아카이브 이용.
2017년 3월

<http://campaign.unicef.or.kr/investment>

unicef
**한 눈에 보는 유니세프
1990-2015 포트폴리오**

최고의 투자 성과를 보고합니다.

1억 2,200만 명
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을 저감했습니다.

26억 명
깨끗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600만 명
주요 교육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투자 성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양 부족 어린이 38% 감소	여자 어린이 조문 12% 감소	0-4세 아이즈 사망률 60% 감소	이동권리협약 비준 196개국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묻습니다.
전 그럴 때마다**

당신의 투자 기준은 무엇입니까?
**유니세프의 투자 기준은 단 하나,
[어린이]입니다.**

오늘 밤에는 무사히 잘 수 있으세요?
내년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안전하게 머물 곳을 잃은
어린이 1,100만 명이 밤하,
인산래해, 폭격의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어린이의
[안전]에 투자합니다.**

매일 가능한 한 빨리 가장 성공적으로
어린이 450만 명이 다섯 살 되기를
맞이 못하고 목숨을 잃습니다.

**유니세프는 어린이의
[생명]에 투자합니다.**

유치원장 결혼 포기 후산,
아동 노동으로 수탈당 여자 어린이들이
공과 학대를 잊어 겁니다.

**유니세프는 어린이의
[미래]에 투자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2030년까지

어린이 1억 6,700만 명이 굶주림이 될 것이고,
5세 미만 어린이 6,900만 명이 목숨을 잃을 것이며,
어린이 6,000만 명이 초등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2030년까지

어린이 1억 6,700만 명이 굶주림이 될 것이고,
5세 미만 어린이 6,900만 명이 목숨을 잃을 것이며,
어린이 6,000만 명이 초등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출자가 아닙니다.
당신처럼 따뜻한 마음, 확고한 신념을 가진
튼튼한 투자자들이 함께합니다.

“어린이를 돕는 것은
피생이 아닙니다.”
— 오스카 워런 Oskar Wigman

“인류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 제가 유니세프와
함께 하는 이유입니다.”
— 데이비드 윌슨 David Wilson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도전적일 수 없습니다.
국경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 미셸 오바마 Michelle Obama

당신의 월 3만 원 투자는
백신이 되고, 영양실조 치료식이 되고, 어린이를 지키는 법안이 되고,
교실이 되고, 희망이 되어 어린이를 지원합니다.

전 세계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멋진 투자.
월 3만 원으로
유니세프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투자를
할 순간,
지금입니다.**

투자하기

여성혐오 타임라인

20's Timeline: Misogyny Timeline

<https://20timeline.com/oversmart/misogyny-timeline>
<https://www.facebook.com/20timeline/posts/1233607600055002>

웹페이지 디자인, 정보 아키텍처

2016. 10. ~ 2017. 01. 웹페이지 디자인 및 개발 / 2016. 07. ~ 2017. 01. 기획 및 취재

소속

20's Timeline
<https://20timeline.com/>
<https://www.facebook.com/20timeline>

제작 참여

조현익 (기사 기획, 취재, 집필, 시각화, 웹 개발)
허자인 (취재, 집필검수)
김어진 (개발검수)



“2016년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였다면, 2016년을 가장 오랫동안 달군 이슈는 단연코 성평등 문제입니다. 성별에 따른 무시와 멸시, 성별에 대한 편견, 다른 성별에 대한 예의없음이나 폭력, 성별에 따른 사회경제적/제도적 불이익, ‘다른 성별이 존재함’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등등. 여러가지 주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를 뭉뚱그려 표현할 때, 한국어로는 어감이 잘 와닿지 않는 ‘여성혐오Misogyny’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역사란 나와 내 옆사람이 함께 경험하고 관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통으로 가진 역사를 복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 경험을 기억하지 못한 채 감정을 소모하며 싸우곤 합니다. ‘메르스 갤러리’의 탄생을 조사하다보면 ‘한국인 여성 메르스 의심환자가 홍콩에서 격리를 거부했다’는 오보 기사를 찾게 됩니다. ‘#나는페미니스트’라는 표현의 유래를 조사하다보면, 요즘 시대엔 남성이 반대로 차별받고 있다며 ISIL에 입단하겠다는 한 청소년의 절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두둔하거나 비판하며 언급되는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31년 전 노동운동가 권인숙이 성고문을 받으며 들었던 “운동권이 성마저도 혁명의 도구로 쓴다”라는 비난이 떠오릅니다.

한국 시민들이 2016년에 목격한 찻찻한 일들부터, 백제 개로왕이 백성을 겁탈하려고 했던 일까지. 한국에서 벌어진 뭔가 찻찻한 일들을 주욱 모아봅니다. ‘여성혐오’라는 단어는 중요하지 않으니, 이 페이지의 내용 하나하나를 읽으며 뭔가 찻찻하다면, 그 근원이 무엇인지 한 번 상상해봅시다.”

- 디자인의 목표

여성혐오 타임라인은 여성혐오 이슈와 연관되었던 2015~16년의 사건들의 맥락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건, 또는 비슷한 맥락의 역사 속 사건 총 435개를 나열합니다. 따라서 독자가 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통해 두 가지 목표를 해결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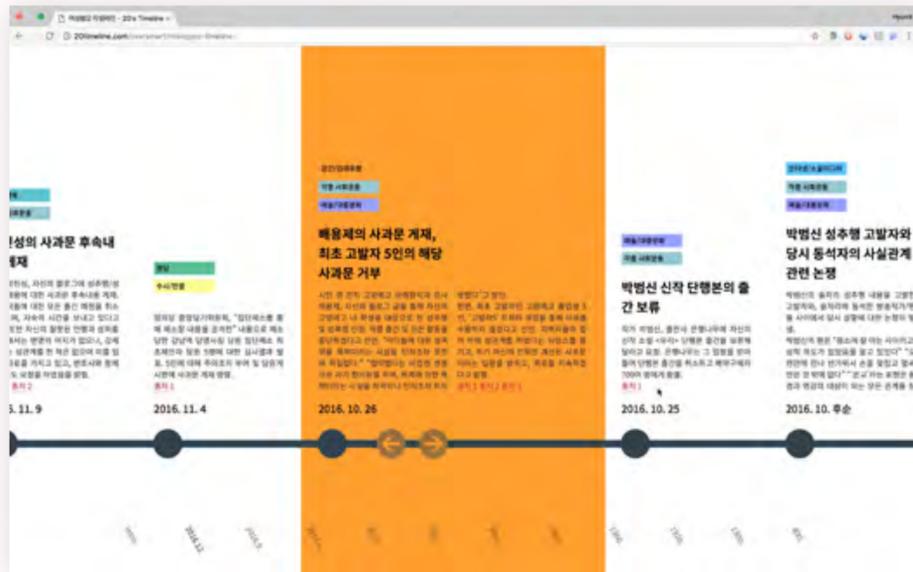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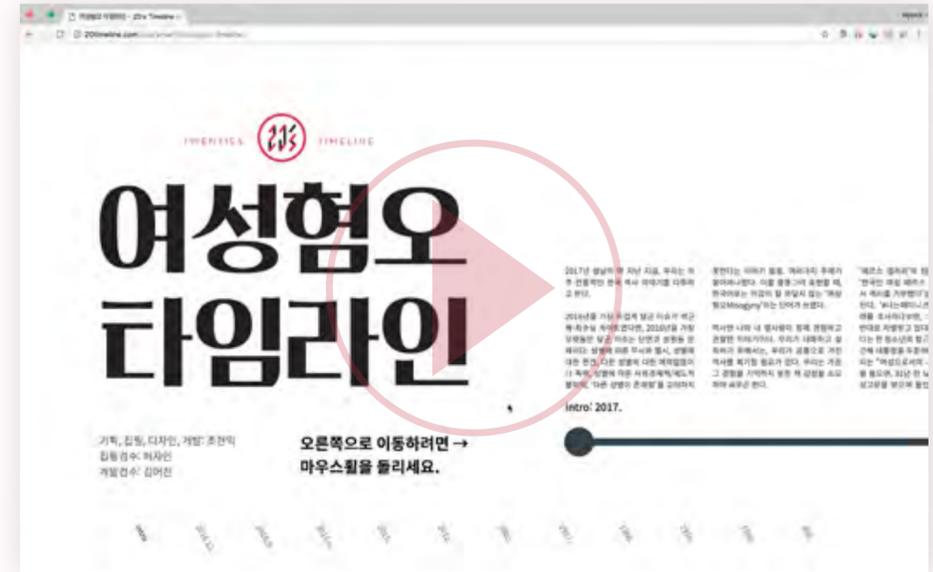
1. 독자가 사건 발생 시점, 사건의 종류, 사건 내용을 함축적으로 파악하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
2. 사건의 지속성, 연속성을 보여줘야 함. 435개의 사건 중에서는 여성혐오 이슈와 직접관련이 없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배경에 해당하는 내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함. 따라서 개별 사건 전후로 연계된 내용이 계속 나타남을 보여줘야 함.

여성혐오 타임라인

180155 × 976 px, 반응형 웹페이지
HTML5, CSS, Javascript, JQuery 사용
2017년 2월

<https://20timeline.com/oversmart/misogyny-timeline>

시연 영상: <https://youtu.be/FFFLjiquu0s>



<https://20timeline.com/oversmart/misogyny-timeline> 에서 직접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 표제어 분류

사건을 총 16가지 표제어로 분류하여, 한 사건에 최대 3가지 표제를 붙입니다. 사용자는 사건을 종류별로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조화

1개의 사건은 표제어/제목/본문/인용문/출처/날짜의 요소로 구성되고, 본문은 길이에 따라 1~4단으로 지정됩니다.

사건 1개를 한 묶음으로 구조화한 JSON 데이터 파일을 불러들입니다. 사건은 날짜 역순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쌓아'올려지고, 1개의 사건에 속하는 요소는 기준선에서부터 하나씩 '쌓아'올려지며 시각화됩니다. 다른 이용자가 지정된 구조에 맞춰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면, 해당 데이터에 맞는 새로운 사건이 곧바로 시각화됩니다.

예술/대중문화

발언

DJ DOC, 신곡 “수취인 분명” 발표

DJ DOC, 신곡 음원 “수취인분명”을 발표하고 무료로 공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임을 발표했으며, 11. 26의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공연할 것임이 알려짐. 가사에서 박근혜를 직접적으로 비판함. 그러나, “Miss(take) 박”, “역대급 뽕뽕,

멘붕 씨노리땅”, “하도 찢러대서 얼굴이 뽕뽕”과 같은 표현을 통해 박근혜가 여성이라는 점, 미용행위 자체에 대한 지적이며, 이것이 여성 일반에 대한 비하적 시선을 담았다는 비판이 제기됨.

[출처 1](#)

2016. 11. 25

- UI (1)

각 사건의 표제어를 클릭하여 같은 표제어의 사건을 강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전체 사건을 죽 읽으면서 표제어를 살펴볼 수도 있고, 화살표를 클릭해 같은 표제어의 이전/다음사건으로 빠르게 타임워프할 수도 있습니다.

발언

언론매체

정치

김기춘의 “여성 대통령에게 묻는 것은 결레” 발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 실장,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침몰사고가 진행 중이던 당시 7시간 동안의 박근혜 대통령의 미용시술 의혹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 비서동, 관저, 영빈관에 산재해 있어 사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해도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른다.

부속실이나 알까. 내가 관저에 가도 대통령의 침실인 안방에 들어가 본 적은 없다. 박 대통령이 무슨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난 대통령 말을 믿고 확신하고 있지만 사실 그걸 물어볼 수가 없었다. 여성 대통령이라. 그런 걸 묻는 건 결레라고 생각했다.”

[출처 1](#) [출처 2](#)

2016. 11. 23

범죄

각종 사회운동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서의 성추행 발생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여성 집회 성추행을 당했다는 복수의 증언을 통해 확산됨. 신체 접촉만하지, ‘예쁜’ 여성 참가자, 영하는 등의 행위가 폭로되었음

[출처 1](#)

2016. 11. 12

- UI (2)

하단에는 각 년도의 마지막 시점으로 타임워프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해서 사용자는 435건의 사건 중 특정 시간대의 내용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Intro

2016.12.

2016.9.

2016.6.

2015.

2012.

2002.

1987.

1960.

1910.

400.

Studio Half-bott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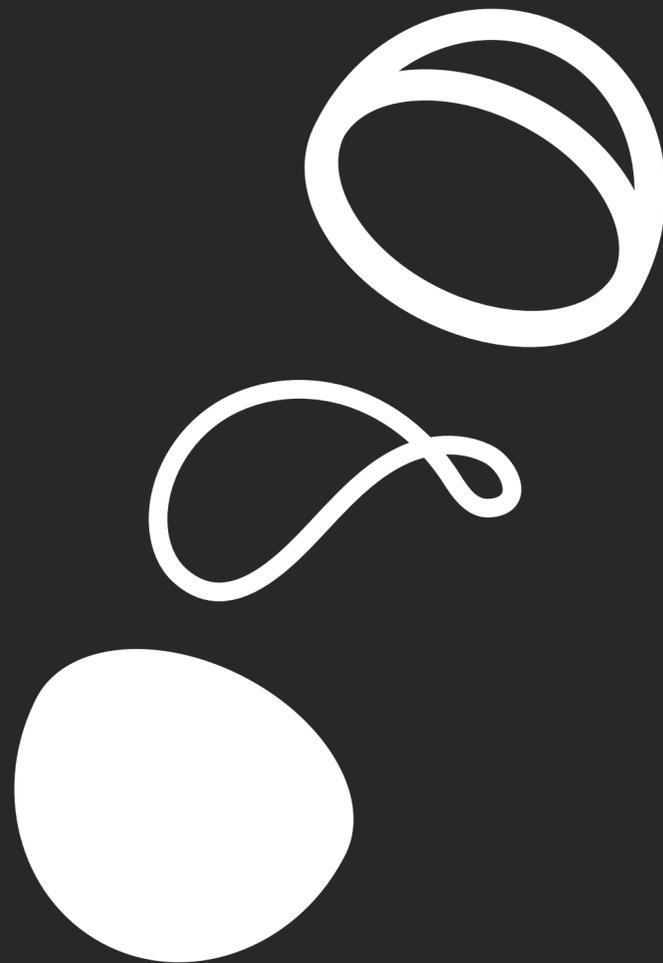
시각디자인 작업 포트폴리오

email address

hello@half-bottle.studio

webpage

<https://half-bottle.studio>



감사합니다.